신라교역|주|

PURE AND HEALTHY MINDS FOR HARMONIOUS COOPERATION

58년 역사 신라교역은 세계의 바다에서
수산자원 개발의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라교역주식회사 | 신라에스지, 신라엔지니어링, 원일특강, 동화청과, 비전힐스, 신라섬유, 신라문화장학재단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비즈밸리로6길 30 / (02)3434-9900 / www.sla.co.kr

원양산업

제 1172 호

(2024년 8월 15일 발간)

창간: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비매품)

Contents

협회소식

- 협회, 한국농어촌공사와 원양산 수산물 판촉 행사 추진 / 4
- 오션폴리텍 어선 해기사 양성과정 채용박람회 참석 / 5
- 협회, 24년 CCAMLR 크릴 심포지엄 참석 / 6
- 해기사 부족, 노사 간의 합의만으론 해결 어려워 / 7
- 유아의 정상적인 발육을 돕는 오징어 / 9

이달의 요리

- 고추참치 메밀 비빔면 / 10

해외수산정보

■ 국제유가 동향

- 8월 싱가포르 MGO 가격, 평균 695달러 / 11

■ 참치어업 동향

- 중서부태평양 6월 어획량, 높은 수준 유지 / 12
- 방콕 가다랑어 8월 초 가격, 톤당 1,550달러 / 14
- 8월 스페인 황다랑어 가격, 소폭 하락 /14
- 日 6월 냉동 눈다랑어 수입 가격, kg당 731엔 / 15
- 日, 5월 황다랑어·눈다랑어 등 가격 하락 / 16
- 日 냉동 참치류 6월 수입 통계 발표 / 17
- 태국 2024년 상반기 통조림 수출량, 22% 증가 /18
- EU 24년 1분기 황다랑어 수입량, 5년 내 최고치 / 18
- EU, 2024년 1분기 참치 통조림 수출 증가 / 19
- 한국의 베트남 참치 수입량 급증 / 19
- 참다랑어 어획에 관한 국제회의, 일본에서 시작 / 20
- 일본의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 쿼터 증가 예정 / 20
- 태평양 참다랑어, 대중화될 수 있을까? / 21
- 美 참치 등 수산물 통조림, 6월 소매 매출 증가 / 22
- 미쓰비시, 이탈리아 기업에 프린스社 매각 완료 / 22
- 태국, 신규 어업 정책으로 원양 선단 확대 추진 / 23
- 타이유니온, 냉동고 신설에 1,400만 달러 투자 / 23
- 트라이 마린, 참치 어획 증가 위해 조업선 신조 / 24
- 신라교역, WCPO에서 지속 가능 인증 완료 /24
- 대서양 황다랑어 추적 / 25
- ISSF "참치 자원 11종, MSC 표준 충족 / 26
- 세이셸 수역 2023년 선망 어획량, 약 40% 감소 / 26

■ 오징어어업 동향

- 타임誌, 中 오징어 선단 문제 실태 심층 보도 /27
- 최신 연구 "오징어 색소, 자외선 차단 효과" /28

원양산업
제1172호

발 행 2024년 8월 15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서울라-9183호

발 행 처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6층 (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발 행 인
편 집 인 김 영 규

Contents

• FAO “2022년 살오징어류 어획량, 31% 감소” / 29
• 냉동 살오징어류, 남미 오징어류 어획 부진 / 29

■ 명태어업 동향

• 러, 2024년 명태 130만 톤 이상 어획 / 30
• FAO, 세계 명태 가격 하락 전망 / 31
• 러시아, 어획량 전년 수준 유지 / 31
• 어획량 증가로 명태 가격 하락 예상 / 32
• 세계 명태 시장, 2032년 약 32억 달러로 성장 / 32
• 美,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규제 강화 촉구 / 33
• 美 명태 기업, 러산 수산물 MSC 배제 등 요청 / 34
• 러 “연육 일본 수출 증가, 당분간 없을 것” / 35
• EU, 러시아산 수산물 추가 제재 검토 / 35
• 러 대구 가공업체, 투자 쿼터 위반으로 벌금 / 36

■ 꽁치어업 동향

• 日 연구기관 “꽁치 내유, 올해도 적은 수준 예상” / 37
• 日 꽁치 수입량, 어획량 부진으로 20% 감소 / 38
• 日, 꽁치 어선의 빨강오징어 어업 겸업 연구 / 38

■ 각국 수산 동향

• 남대서양에서 이빨고기 조업선 침몰 사고 발생 /39
• 외항선 외국인 선원, 필리핀인이 가장 많아 /39
• WTO, 수산 보조금 2차 협상 통과 실패 /40
• 에콰도르 해군, 갈라파고스제도 IUU 순찰 강화 /40
• 2032년까지 수산물 소비량, 12% 증가 / 41
• 해기 인력 유지를 위한 노력 / 42
• 中 원양어선, 수익성 유지 위해 임금 삭감 / 43
• 즉석조리 및 섭취 제품에 대한 관심 증가 예상 / 43
• 러시아 생선 통조림과 보존 식품의 생산 늘려 / 44
• 러시아 항구 현대화 추진 / 44
• 러 조업감시센터, 오만에 소개 / 45
• 일본의 수산업, 고사위기에 빠져 / 45
• 세네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생선, 세네갈 떠나 / 46
• 사우디아라비아, 어업 지원 프로그램 시작 / 46

쉬어가는 난

• 명태 - 김기택 / 47

국내 수산 정보

• 7월 오징어 국내 동향 / 48
• 7월 명태 국내 동향 / 50
• 해수부,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 개최 / 52

협회, 한국농어촌공사와 원양산 수산물 판촉 행사 추진

원양산 수산식품 소비촉진 목적 명절대비 선물세트 행사

우리 협회는 8월 14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원양산 수산물 소비 촉진의 하나로 명절 대비 농어촌공사 직원 대상 시식 행사 및 횟감용 참치 등 선물세트 판촉 행사를 진행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구내식당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이병호 CEO 외 공사 임직원 300여 명, 동원산업·사조씨푸드 관계자 6여 명이 참석하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김영규 협회장, 해외협력1부 과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양측이 지난 7월 19일 체결한 '농어촌공사-원양산업협회 동반성장 실현을 위한 MOU'의 일환이다.

이날 협회 측은 "지속되는 무더위 속에 농어촌공사에서 오늘과 같은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한-태도국, 한-아프리카 ODA 사업 역시 양측의 가능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우리 원양산 수산물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뜻을 전하였다.

오션폴리텍 어선 해기사 양성과정 채용박람회 참석

정부·단체·업계가 협업하여 수산업계 공동 채용박람회 운영

우리 협회는 8월 2일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이 수산업계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4년도 오션폴리텍 어선 해기사 채용박람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연수원 오션폴리텍(Ocean Polytech) 어선 5급 교육과정 수료예정자 33명과 어선 6급 교육과정 수료예정자 1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총 7개 국내 주요 원양 및 연근해 어선 선사들이 참여하였다. 원양업계에서는 동원산업, 동원수산, 사조산업, 신라교역(이상 가나다순)이 참여하였고, 협회에서는 부산지부장이 참석하였다.

이날 진행된 채용면접에서 합격한 오션폴리텍 어선 해기사 양성과정 교육생들은 수료 후 선사에 실습해기사로 승선하여 실습과정을 거친 후 어선 선박직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협회, 24년 CCAMLR 크릴 심포지엄 참석

MPA 조화 시나리오 및 크릴 어획한도 관련 논의

우리 협회는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크릴 관리 심포지엄에 참석하였다.

심포지엄에는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원양산업과, 극지연구소, 해양수산과학원, 극지연구소, 해외수산협력센터 등이 참석하였고, 원양업계에서는 정일산업, 티앤에스산업(이상 가나다순)이 참석하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해외협력2부 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MPA 조화 시나리오 및 48.1 해역 크릴 어획한도에 관한 권고사항이 논의되었고, 현존 보존조치의 개정 및 신규 보존조치의 개정 필요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해기사 부족, 노사 간의 합의만으론 해결 어려워

국제적인 상황을 반영한 법령 개정 필요

우리나라 수산물 소비량은 연간 1인당 68.4kg(e-나라지표, 2021년 최신 기준)을 소비하고 있다. 2012년에 비해 14.6kg이 증가한 수치다. 이에 반해 동기간 수산물 자급률은 76.5%에서 71%로 감소하였다.

식량은 인류의 기본적인 필요 중 하나로, 식량안보와 자급률은 국가와 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기후 위기, 천재지변, 식량보호주의 확산에 따라 우리의 식량안보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원양어업은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 EEZ나 공해에서 국내에 없거나 부족한 참치, 명태, 이빨고기(메로), 오징어, 꽁치, 대구 등의 수산자원을 어획하여 먹거리를 제공한다. 2023년 기준 양식업과 내수면 어업을 제외한 어업생산량 171만 3,000톤 중에 원양어업은 44%인 75만 7,000톤을 차지한다.

식량안보 문제를 연근해 등 국내 어업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수산자원은 수온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고, 우리 바다가 어떠한 이유로든 오염된다면 수산자원을 얻을 수 없다. 실제 수온 변화에 따라 어획 자원이 급감하였다는 소식은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원양어업의 지속을 위하여, 선박 노후화 문제는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지만, 해기사 인력 문제는 노사 간 합의에만 맡기고 있다. 64세 이상의 고령 해기사가 노화로 한꺼번에 선박 근무가 불가하게 되면 해기 인력은 급격하게 줄어 선박 대부분은 출항이 불가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9개 수산계 고등학교와 6개 대학교를 통하여 매년 5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으나, 수료생 중 해기 면허를 취득하는 비율은 60%, 최종적으로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졸업생은 5%(25명)에 불과하다.

또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로 병역 특례를 마친 인력은 3년 이내에 대부분 하선하고 있다. 이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해기사 면허(5급)를 취득하게 하는 과정을 개설하여 해기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나, 이 중 일부(12%)만 원양 어선에 승선하여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원양어업 중 참치 선망어선은 다른 업종보다 임금이 높고, 선박 규모도 크고, 선령도 낮아 거주 및 작업환경이 양호하고, 월 1회 정도 입항하여 근무 환경이 좋음에도 인력 유입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는 1인 가구 증가·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와 직업 가치관 변화 등이 해기 인력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선진국은 물론이며 인력이 풍부한 중국에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1984년 제정된 선박의 승무 기준은 선박톤수(길이)와 기관 추진력(kW)에 따라 갑판부, 기관부에 최소한 승선시켜야 할 해기 인력의 면허 급수와 인원을 정하고 있다.

선박 및 운항 장비가 첨단화되고 있고, 심지어 무인선박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도, 법정 승무 정원은 1984년 이후 변함이 없다. 이에 승무 정원을 다소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인력수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을 포함한 고급 사양의 통신장비를 선박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19세기 유일한 통신수단 능력을 요구해서는 안되며, 양성도 되지 않는 통신장을 승선토록 하는 규정은 우선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해양 산업에서 상선과 어선은 형태, 기능 및 목적이 다르다. 이에 안전, 근무, 자격 기준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어선에 비해 상선에 적용되는 국제 협약의 규제가 더 강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령에서는 상선과 어선에 동일한 법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필요 이상으로 강화된 규정이 어선에 적용되기도 한다.

오래전부터 영국, 뉴질랜드, 미국 등에서는 상선과 어선의 자격 기준을 단순화하여 인력 충원을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자격 기준을 단순화하고 현실을 반영하는 타국의 사례를 적용한다면, 해기 인력 충원과 장기 승선의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이외에 우리나라 상선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해기인력을 도입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해기 인력을 도입하는 것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원양어업은 스승과 제자형태로 우리 원양어선에서 오랜 기간 승무한 해기 인력이 있을 때 도입돼야 조업에 필요한 기술이 전수되고, 그에 따라 안전한 조업과 식량안보를 유지할 수 있다. 고령 인력이 한꺼번에 이탈된 뒤 외국 해기 인력 등이 도입된다면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원양어선에 외국 해기 인력을 도입하려면 STCW-F(해양 직업 기능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국제 협약)에 우리나라가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협약 가입국 간에 해기 면허를 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한 후, 해당 국가의 해기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원양어선에 승선할 수 있다.

하지만 STCW-F 협약 가입을 위해서는 관련법, 교육 내용을 정비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등 절차적으로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 이에 현재 법을 일부 개정해 우리나라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도, STCW-F 협약에 가입하고 해기 품질이 검증된 다른 나라의 해기 인력을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승선하는 방법도 있다.

실제로 우리 협회에서는 제20대, 제21대 국회에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하였지만,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원양어업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와 식량안보를 고려한다면 중요성이 매우 큰 산업이다. 지난 1957년 지남호가 원양 시험 조업을 한 이후로 1979년까지 임금으로 벌어들인 외화는 약 2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독일로 간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가 벌어들인 외화의 20배에 달하며, 1971년 우리나라 총수출액의 5%를 차지하였다. 참고로, 수출의 10%가 순수익으로 원양어업을 통해 번 임금은 수출액 대비 10배의 가치를 가진다. 이는 단 1달러가 귀하던 시기, 우리 원양어업 선원들이 벌어들인 외화는 1960년대와 1970년대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현재도 원양산업은 연근해어업과 함께 식량안보 산업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으며, 물가 안정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해기 인력 문제는 원양 선사가 단독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선사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정부가 원양어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정책으로 보여준다면 원양어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선원에 대한 근로 여건도 개선이 가능한 환경이 마련될 것이다.

〈현대해양 2024년 5월 16일자 수록〉

유아의 정상적인 발육을 돕는 오징어

시력과 근육 회복 효과로 현대전에서도 활용

전 세계에 존재하는 오징어류는 30과 460 어종이 있다. 오징어는 10개의 팔 중에서 2개가 다른 팔보다 길며 이 팔은 먹이를 잡을 때와 번식 때 사용한다.

대부분의 오징어는 일생에 단 1회의 산란으로 생을 마감한다. 하지만 갈고리흰오징어처럼 2년동안 살거나 훔볼트 오징어(아메리카대왕오징어)의 경우 4년 이상 사는 경우도 있다.

오징어는 낮에는 수온이 낮은 저층에 있다가 밤에는 수온이 높은 표층으로 부상하는 수직이동을 반복하므로 내온성이 강하여 5~6℃의 수온 차이도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오징어는 환경변화에 민감하여 스트레스가 없는 좋은 환경에서는 투명하게 변하여 내장까지도 볼 수 있으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적색 및 갈색 등으로 변한다. 이것은 오징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근육이 이완되어 체 표면의 색소포가 수축하여 투명하게 되나 긴장하게 되면 근육이 수축하여 색소포를 당겨 확장하게 되어 적갈색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몸통의 근육은 몸의 중심축과 직각 방향으로 가느다란 근섬유가 아주 많지만, 중심축과 같은 방향의 근섬유는 대단히 적다. 이에, 마른오징어는 몸의 중심축과 직각 방향으로는 잘 찢어지지만, 중심축과 동일한 방향은 잘 찢어지지 않는다.

몸통과 팔 사이에는 눈과 입이 있는 데 사실 이 몸통 부분이 머리이며 오징어 귀라고 불리는 것은 지느러미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리는 오징어 그림은 오징어로선 위와 아래를 반대로 그린 그림이다.

오징어 머리에는 먹물이 있는데 오징어와 비슷한 연체동물인 문어의 먹물은 연막을 위한 것이나 오징어 먹물은 포식자에게 먹물 덩어리를 먹게 하여 오징어를 먹었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려는 용도로 사용되므로 문어의 먹물보다 점성이 강하다.

오징어의 입은 새의 부리 모양으로 뼈같이 단단하나 질긴 근육이며, 치악력은 아주 강력하다. 우리가 먹고 있는 오징어 중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나 원양어업으로 드물게 잡고 있는 훔볼트 오징어의 경우 치악력은 510kg이상으로 코끼리뼈도 씹어먹는다는 하이에나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옛 사람들은 먹물과 부리를 연관지어 '까마귀가 물에 가면 오징어가 된다', '오징어가 까마귀를 잡아먹어 까만 먹물이 있다'라고 상상하였다.

오징어는 타우린이 풍부하다. 이 타우린은 간장의 해독 기능을 강화하여 피부미용에 좋으며, 혈액 중의 콜레스테롤을 감소하여 혈압을 정상화한다. 또한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여 당뇨병을 예방하고 시력과 근육의 회복에 효과가 있다. 이에 2차 대전 중 일본군 조종사에 다량 투여한 기록도 있다. 또한 신생아에게 모유 대신 분유를 먹일 경우 타우린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발육에 지장을 주므로 오징어가 그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

고추참치 메밀 비빔면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료: 고추참치 1캔(150g), 메밀면 100g, 완두콩 15g, 스위트콘 15g, 대파(흰부분) 1대, 홍고추 1/3개, 다진 마늘 5g, 김 1봉, 계란노른자 1개 땅콩가루 10g, 가쓰오부시 2g
- 소스 재료: 진간장 1큰술, 들기름 1작은술, 설탕 1작은술

✤ 이렇게 만드세요

① 메밀면을 끓는물에 삶아 찬물에 헹궈 준다.
② 완두콩, 스위트콘은 물기를 제거하여 준비한다.
③ 대파(대파는 찬물에 담구어 매운맛을 제거)와 홍고추는 송송썰고, 마늘은 다지고, 김 가루는 잘게 잘라 준비한다.
④ 메밀면을 간장, 들기름, 설탕에 버무려 준비된 그릇에 담는다.
⑤ 그 위에 대파, 마늘, 홍고추 완두콩, 스위트콘, 김 가루를 담는다.
⑥ 고추참치, 가쓰오부시, 계란노른자 순으로 토핑하여 완성한다.

8월 싱가포르 MGO 가격, 평균 695달러

8월 12일 기준 691달러

8월 12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79.66달러, WTI 가격은 80.06달러, 브렌트유 가격은 80.72달러를 기록하였다.

8월 12일 기준 싱가포르 선박용 경유(MGO) 가격은 톤당 691달러로 7월 12일(747달러) 대비 약 7% 하락하였다.

8월 평균(8.1~8.12) 가격은 695달러로 전월 평균(7.1~7.31)인 744달러 대비 약 7% 하락하였다. 전년 8월 평균보다 23% 하락하였고, 전전년 8월과 비교하면 33%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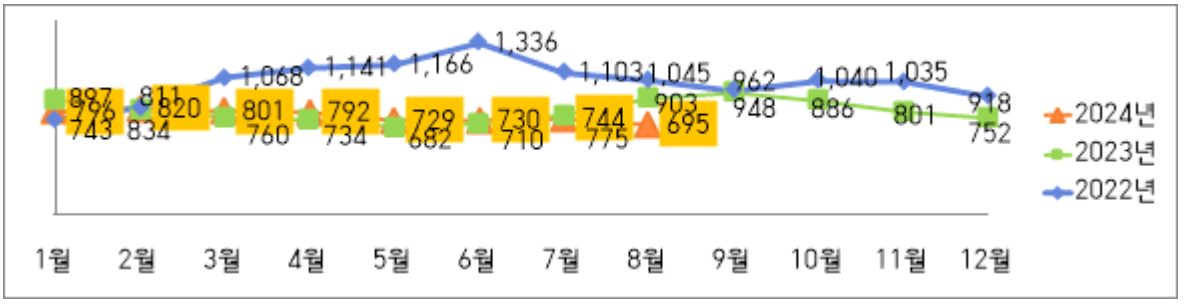
2024년 평균(1.2~8.12) 가격은 768달러로 전년(1.1~12.29) 평균 대비 3% 하락하였고, 전전년 평균 대비 25% 하락하였다.

7월 말까지 국제 유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가능성 고조, 미 달러화 가치 상승 등으로 하락세였으나, 주요국 기준금리 인하 및 인하 기대감 등으로 인하여 하락폭이 제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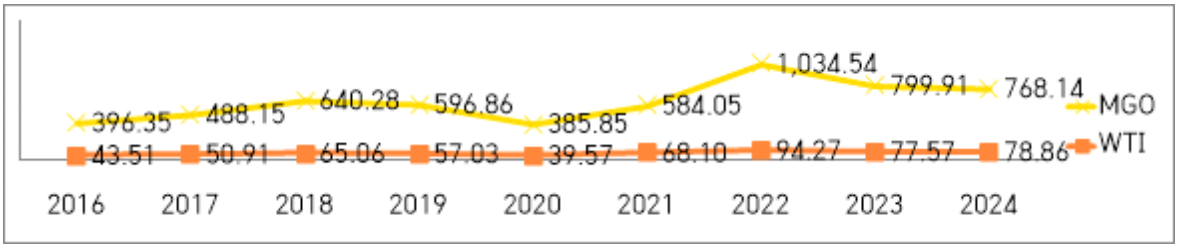
그러나 8월 초 이후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해외에서는 중국 원유수요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휴전 협상의 향방에 따라 중동 사태가 국제유가 상승 전환의 촉매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동 불안이 절정으로 치닫을 경우 올 하반기에 국제 유가가 90, 100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연도별 월별 싱가포르 MGO 평균 가격 〉



〈 연도별 MGO, WTI 평균 가격 〉



중서부태평양 6월 어획량, 높은 수준 유지

6월 전재량 지난 5년간 최대치

중서부태평양 6월 참치 어획량은 5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어종의 비중에는 변화가 있었다. 가다랑어는 감소하였고 대형, 소형 황다랑어 어획량은 상당한 증가를 보였다. 선망선단은 주로 중서부태평양 남서부에서 조업하였다.

잠정 수치 및 수정된 5월 데이터에 따르면, 6월 중서부태평양 조업일수는 공해와 나우루협정당사국(이하, PNA) 수역을 통틀어 3,706일로, 5월 대비 2% 증가하였다. PNA 수역에서의 선박조업일수제도(이하, VDS) 사용일수는 전월 대비 14일 증가한 3,547일로, 2023년 6월 대비 27% 증가하였다.

어업 활동의 대부분은 파푸아뉴기니(이하, PNG)와 미크로네시아 수역에서 이루어졌다. PNG에서의 어업 노력량은 전체의 49%로, 5월의 비중인 27%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미크로네시아 수역에서의 어업 노력량 비중은 전체의 26%로, 5월의 39%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이 2개국 수역에서의 조업 노력량은 전체의 약 3/4을 차지한다.

공해에서의 어업 노력량은 5%로, 5월의 수치인 7%보다도 감소하였다. 솔로몬제도와 투발루 수역에서의 조업 노력량은 각각 6%와 1%로, 5월 수치인 13%와 2% 대비 감소하였다. 키리바시 수역에서의 조업 노력량 비중은 전체의 10%로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다.

6월 중순 선망 어획량은 15만 1,000톤으로, 5월의 예상치와 거의 동일하였다. 1일 평균 어획량은 41톤으로, 전월과 거의 동일하였으나 전년도 6월에 비하면 28% 증가하였다.

PNG의 1일 어획량은 43톤이며, 어획량 비중은 전체의 51%를 차지하였다. 미크로네시아의 1일 어획량은 39톤으로, 어획 비중은 42%에서 25%로 감소하였다. 공해에서의 어업 노력량은 적었으나 1일 어획량은 46톤으로 가장 많았다.

키리바시, 나우루, 마셜제도의 어획량 비중은 다소 증가하였다. 키리바시의 일일 어획량은 36톤으로 증가하였고, 마셜제도는 2톤에서 14톤으로, 나우루는 10톤에서 39톤으로 증가하였다. 어업 활동이 반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제도 수역에서의 1일 어획량은 40톤을 기록하였고, 어획량 비중은 전체의 6%를 차지하였다.

팔라우의 1일 평균 어획량은 13톤으로, 5월의 1일 19톤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6월 가다랑어 어획량은 13만 6,400톤으로 전월 대비 약 4% 감소하였다. 일일 어획량은 1일당 약 37톤으로, 5월 대비 6%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2023년 동월에 비하면 3/4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소형, 대형 황다랑어 1일 어획량은 각각 2.1톤, 0.9톤으로, 전월 대비 각각 70%, 334% 증가하였다. 6월 소형(9kg 미만) 황다랑어 어획량은 총 7,900톤으로 전년도 동월 대비 100% 증가하였다. 대형(9kg 이상) 황다랑어 어획량은 3,400톤으로, 5월 어획량보다는 대폭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전년 동월 어획량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소형, 대형 눈다랑어 일일 어획량은 각각 0.7톤, 0.1톤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소형 눈다랑어 6월 총 어획량은 2,700톤으로 5월 대비 26% 증가하였고, 대형 눈다랑어 어획량은 358톤으로 5월 대비 15% 증가하였다.

한편, 올해 6월 PNA 항구 전재량이 지난 5년간의 월간 전재량을 통틀어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6월 운반선 활동은 어획량에 힘입어 증가하였다. 가장 많은 전재 활동을 기록한 항구는 미크로네시아였다.

6월 PNA 항구 냉동 원어 전재량은 9만 2,500톤으로, 5월 대비 12% 증가하였다. 총 131척의 선망선이 냉동 운반선에 전재하였다. 이는 전월의 123척 대비 7% 증가한 수치이다.

중서부태평양 선망선단은 6월 총 15만 1,000톤을 어획하였다. 이는 5월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 5년을 통틀어 최다 수준이다.

이 물량의 상당수는 몇 주 내로 방콕에 하역될 예정이며, 방콕 가다랑어 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어획물의 대부분은 PNG에서 어획되었으나, 6월 전재 활동의 48%는 미크로네시아에서 이루어졌다. 폰페이(Pohnpei)와 코스라에(Kosrae) 등의 항구에서 전재된 양은 모두 4만 4,250톤이다. 마당, 라바울, 라에 등 PNG 항구를 통하여 전재된 양은 3만 5,000톤이다. 이는 전체의 41%를 차지하였던 5월에 비하면 감소한 수치이다.

솔로몬제도, 투발루에서의 전재량 합계는 증가하였으나, 키리바시, 마셜제도, 나우루에서의 전재 활동은 전월 대비 감소하였다. 솔로몬제도에서의 어획량은 전체의 6%인 9,060톤이며, 전재량은 약 7,000톤이다. 이 중 약 2,000톤은 SolTuna 가공공장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FAD 금어기로 인하여 7월 전재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Atuna, 2024년 7월 22일자, 23일자

방콕 가다랑어 8월 초 가격, 톤당 1,550달러

7월 중순 대비 3% 하락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가다랑어 계약은 톤당 1,550~1,600달러 선에서 체결되었고, 대형 가공업체는 그보다 낮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 Atuna는 8월 초 방콕 가다랑어 가격을 7월 중순 대비 3% 하락한 톤당 1,550달러로 집계하였다.

방콕 가다랑어 가격은 6월 말 이후 4주 연속으로 톤당 1,600달러를 유지하고 있었다.

6월 중서부태평양 선망선단 월간 전재량은 지난 5년을 통틀어 최고 수준인 9만 2,000톤 이상을 기록하였다. 이 중 상당량이 방콕으로 유입되었다. 한 주요 태국 가공업체 측에 따르면, 이 물량은 현재 방콕 항구에서 하역되고 있다.

다수의 소식통은 가공업체가 많은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가공에 필요한 분량만큼의 원어를 사들이는 중이라고 말하였다.

중서부태평양 FAD 금어기는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시행되며, 일반적으로 이 기간에 어획량은 감소하고 방콕에 양륙되는 가다랑어 물량 또한 감소한다. 올해는 가공 공장의 수요가 여전히 미온적이며, 앞으로 수주간 가다랑어 공급 감소와 가격 하락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컨테이너 운임 급등으로 인하여 최종 구매자들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 한 무역업체 측에 따르면 홍해 사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통상적인 아시아-중동 항로의 해상 운임도 상승하였다. 두바이행 20피트 컨테이너 운임은 1년 전 1대당 800달러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3,800달러로, 무려 375%나 상승하였다. 2024년 상반기 동안 태국 가공업체와 중동 시장과의 무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 출처: Atuna, 2024년 8월 2일자

8월 스페인 황다랑어 가격, 소폭 하락

톤당 2,650유로…어획량 증가 영향

8월 스페인 황다랑어 가격은 전월 대비 다소 하락하였다. 이는 주로 동부태평양 및 인도양에서의 어획량 증가에 따른 것이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스페인에서의 황다랑어 가격은 CIF(운임, 보험료 포함 조건) 기준으로 톤당 2,650유로 혹은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이탈리아의 CIF 가격은 스페인보다 약간 높은 톤당 2,700유로이다. 그러나 최근 남부 유럽은 휴가로 인하여 시장 가격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도양에서 선박 대부분의 어업 활동이 둔화하는 동안, 일부 대형 스페인 선박은 황다랑어 스쿨 조업을 계속하는 중이라고 소식통은 말하였다.

인도양 지역의 대형 황다랑어 가격은 톤당 2,300유로까지 하락하였다. 대신 대서양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서는 톤당 2,500유로로 소폭 상승하였다.

유럽에서는 여름 휴가철로 인해 거래 활동이 최소화되었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8월 2일자

日 6월 냉동 눈다랑어 수입 가격, kg당 731엔

4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일본 재무부 무역 통계에 따르면, 다랑어류 6월 수입 실적은 신선·냉장 제품 수입량 288톤(전년도 동월 대비 39% 감소), 수입액 4억 1,500만 엔(50% 감소), 냉동 제품 수입량 1만 1,248톤(16% 감소), 수입액 117억 6,100만 엔(8% 감소), 가공품 수입량 4,145톤(9% 감소), 수입액 36억 300만 엔(7% 감소)이었다.

6월 냉동 눈다랑어 GG(아가미, 내장 제거) 수입량은 3,457톤(30% 감소)으로, 1~6월 누계는 2만 1,829톤(8% 감소)이다. 2월까지는 전년도 동월 대비 증가였으나, 3월부터는 전년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나갔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통계상의 수치로, 냉동고에 공간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운반선의 해상 재고는 6월 말 기준 1만 6,0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냉동고 공간 부족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 때문이며, 한 관계자는 "작년보다도 심각하다"라고 언급하였다.

작년 6월 말 해상 대기 중인 운반선의 재고는 1만 2,200톤으로, 단순 수량으로 따져도 올해가 더 많다. 여기에 컨테이너 운반 및 지중해 양식 참다랑어 필렛의 수가 작년보다 증가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냉동고의 확보는 작년 이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공간 확보를 위하여 최대한 빨리 재고를 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품 가격이 오르기 어렵다. 냉동 눈다랑어 중 수량이 가장 많은 대만산의 kg당 단가는 731엔(11% 하락)으로, 5월 가격인 kg당 736엔 대비 소폭 하락하면서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나갔다.

냉동 참다랑어 필렛은 홍해 사태로 인한 희망봉 루트로의 변경 및 냉동고 문제로 인하여 입하가 지연되고 있다. 가장 물량이 많은 시기를 지난 6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4.8배에 해당하는 2,417톤이 반입되었다. 2024년(2023년 11월~2024년 6월)의 누계는 2만 1,625톤으로, 2023년(2022년 11월~2023년 6월) 동기 대비 5% 증가하였다. 2024년은 7월까지 반입이 계속되고 있으며 수량은 더 쌓이고 있다.

반면 단가는 4월에 kg당 2,000엔 아래로 떨어진 뒤에도 계속 하락하였다. 6월 단가는 1,917엔(51% 하락), 2024년 평균 단가는 2,169엔으로, 2023년 대비 41% 하락하였다.

참다랑어 수입에서 일본의 경쟁국인 한국(중국의 한국 경유 수입도 포함)에서의 수요는 감소하였다가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독자적 참다랑어 매입 시작으로 인하여, '한국의 매입이 2023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계자는 예상하였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4년 8월 6일자

(일본 대만산 냉동 눈다랑어 수입 단가 그래프)

日, 5월 황다랑어·눈다랑어 등 가격 하락

날개다랑어 외에 전반적 하락세

일본 농림수산성 데이터에 따르면, 5월 일본 주요 항구에서의 신선 황다랑어, 눈다랑어, 참다랑어 양륙 가격은 하락하였다.

올해 5월 신선 눈다랑어 양륙 가격은 톤당 112만 엔으로, 전년도 동월 대비 약 26% 하락하였다. 데이터에 따르면 신선 눈다랑어 양륙 가격은 2023년 3~4분기 동안 상승세를 이어 갔고, 2023년 12월 최고점인 톤당 227만 엔을 기록하였다.

5월 신선 황다랑어 양륙 가격은 전월 대비 14% 하락한 톤당 98만 2,000엔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급락은 황다랑어가 9개월간 고가로 거래된 이후에 나타난 것이다. 신선 황다랑어는 2023년 12월 톤당 192만 4,000엔으로 연중 최고가를 기록하였다.

신선 참다랑어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톤당 400만 엔 전후의 고가에 거래되었으나, 5월 가격은 전월 대비 47%나 급락한 톤당 217만 5,000엔을 기록하였다. 신선 참다랑어 가격은 2024년 2월 톤당 476만 9,000엔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신선 날개다랑어 가격은 올해 1분기 동안 톤당 35만 9,000엔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2개월간 상승세였다. 5월 가격은 톤당 41만 3,000엔으로 전월 대비 0.24% 상승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7월 19일자

Landing price of tunas (Main fishing ports in Japan)

Year/Month	Bluefin Tuna *		Albacore		Bigeye Tuna		Yellowfin Tuna	
	(Fresh)	(Frozen)	(Fresh)	(Frozen)	(Fresh)	(Frozen)	(Fresh)	(Frozen)
2023. 6	1,852	1,714	399	350	915	979	926	540
2023. 7	1,784	1,353	470	368	899	784	989	510
2023. 8	2,506	1,390	835	430	1,937	946	885	496
2023. 9	2,980	1,477	881	471	1,831	873	792	512
2023. 10	2,923	1,650	685	448	1,676	935	1,149	516
2023. 11	3,139	1,809	503	445	1,575	935	1,196	536
2023. 12	4,641	1,573	379	444	2,270	928	1,924	488
2024. 1	3,622	1,765	378	368	2,049	1,015	1,487	440
2024. 2	4,769	1,652	336	476	1,947	967	1,424	538
2024. 3	4,283	1,748	363	474	2,117	966	1,372	610
2024. 4	4,079	1,331	412	452	1,522	982	1,144	619
2024. 5	2,175	2,391	413	450	1,120	936	982	628

* Includes Southern bluefin tuna.
Unit: Yen/Kg
Source: Ministry of Agriculrue, Forestry and Fisheries of Japan.

(일본 2023년 6월~2024년 5월 참치 양륙 가격)

日 냉동 참치류 6월 수입 통계 발표

한국산 눈다랑어 118톤 수입

〈 2024년 6월 일본 냉동참치 수입 통계 〉

(단위: 톤)

어종	국가	'24년 1월	'24년 2월	'24년 3월	'24년 4월	'24년 5월	'24년 6월
날개다랑어	한국	25	6	34	4	77	23
	대만	330	12	490	458	637	148
	바누아투	-	-	121	740	333	104
	기타	109	299	572	235	59	349
	소계	464	317	1,218	1,437	1,106	623
황다랑어	한국	261	148	76	265	239	29
	중국	425	472	624	375	106	394
	대만	1,798	970	1,118	1,742	1,172	891
	필리핀	-	-	49	-	-	49
	인도네시아	-	-	-	-	-	-
	미국	-	-	-	-	-	-
	바누아투	36	26	212	152	139	211
	피지	-	-	13	-	-	-
	키리바시	-	-	-	27	-	17
	마셜제도	-	-	45	-	-	-
	기타	1,359	630	289	1,658	954	397
	소계	2,869	2,245	2,426	4,220	2,610	1,989
눈다랑어	한국	259	225	297	126	484	118
	중국	202	755	808	980	385	582
	대만	1,928	1,438	2,319	2,508	1,894	1,707
	필리핀	-	-	-	0	-	-
	인도네시아	-	-	-	-	-	-
	세이셸	470	461	119	693	389	338
	바누아투	52	17	378	442	259	665
	기타	110	4	52	169	147	48
	소계	3,020	2,901	3,974	4,917	3,559	3,457
남방참다랑어	한국	-	158	17	-	-	-
	대만	95	143	1	6	3	-
	호주	-	-	19	-	-	-
	소계	95	301	37	6	3	-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4년 8월 6일자

태국 2024년 상반기 통조림 수출량, 22% 증가

약 25만 톤…이집트행 수출량 증가

태국 참치 통조림 업체의 2024년 상반기 수출량은 거의 모든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증가하였다

태국은 2024년도 상반기 동안 전년도 동기 대비 22% 증가한 24만 8,272톤의 참치 통조림을 수출하였다. 평균 수출 단가는 톤당 4,279달러였다. 2023년도 상반기 통조림 평균 수출 단가는 톤당 2,000달러 이상이었던 전년도 가다랑어 가격을 비롯한 높은 원료 비용으로 인하여 역사적인 고점을 기록하였다.

2023년에 기록하였던 수출량 급락과는 달리, 2024년 상반기 태국의 미국행 참치 통조림 수출량은 증가하였다. 미국행 수출량은 전년도 대비 12% 증가한 총 4만 4,909톤을 기록하였다. 수출 단가는 톤당 4,439달러로 5% 하락하였다.

상당수 중동 국가로의 통조림 수출량 또한 증가하였다. 태국의 최대 시장 2위 자리를 지킨 리비아행 수출량은 2만 2,353톤으로 전년도 상반기 대비 37%나 증가하였다. 리비아 평균 수출 단가는 모든 시장을 통틀어 매우 낮은 편인 톤당 3,840달러를 기록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에서 유일하게 수출량이 감소한 시장이다. UAE, 이스라엘, 이집트로의 수출량은 증가하였다. 이집트 수입량이 전년 대비 약 2배인 1만 4,235톤을 기록하였다는 것은 2023년 이집트 화폐가치 폭락을 감안하면 놀랄 만한 수치이다.

* 출처: Atuna, 2024년 8월 1일자

EU 24년 1분기 황다랑어 수입량, 5년 내 최고치

전년 대비 약 78% 증가

EU의 2024년 1분기 주요 참치 어종 원어 수입량은 32% 증가한 3만 7,661톤이며, 이 중 스페인의 수입량이 전체의 72%를 차지하였다.

EU 황다랑어 수입량은 지난 5년간의 1분기 수입량을 통틀어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24년 1분기 EU 황다랑어 수입량은 2만 4,897톤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하였다. 평균 단가는 17% 하락한 2,709유로이다.

비(非)EU 선단의 EU행 황다랑어 수출량은 대폭 증가하였다. 한국 선단은 2024년 1분기 EU에 3,132톤의 황다랑어를 수출하였다. 이는 전년도 동기 대비 20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벨리즈는 이번 분기에 전년 대비 4배나 많은 2,907톤을 수출하였다. 벨리즈의 수출 단가는 비EU 수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톤당 2,848유로였다.

소형 황다랑어를 어획하는 선망선과 대형 황다랑어를 낚는 연승선을 모두 보유한 필리핀 선단의 EU행 수출량 또한 2,444톤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EU가 대부분의 선단을 보유하였고 주로 스페인 시장에 수출하는 파나마,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중 엘살바도르 선단의 수출량만이 증가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7월 9일자

EU, 2024년 1분기 참치 통조림 수출 증가

평균 단가 2022년 대비 톤당 1,101유로 상승

EU는 2024년 1분기 동안 참치 통조림 6만 9,443톤을 수출하였으며, 이 중 91%가 같은 EU 국가로 수출되었다. 평균 수출 단가는 톤당 6,398유로로 전년도 1분기 대비 147유로 상승하였으나, 2022년도 1분기와 비교하면 1,101유로나 상승하였다.

참치 통조림 수출 가격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급등하였고, 2024년에는 한층 더 상승하였다. 원어 가격 및 기타 비용 상승이 2023년의 가격 상승을 유발하였고, 올라간 가격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EU의 1분기 EU 내 통조림 수출량은 6만 3,426톤이며, 가격은 2% 상승하였다. 이탈리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1만 2,817톤을 수출하며 최다 수출국 지위를 지켰다. 프랑스의 1분기 수출량은 1만 2,228톤으로, 전년도 1분기 대비 1,808톤 증가하였다.

EU 외 시장 중에서 가장 많은 EU산 통조림을 수입한 국가는 캐나다로, 전년도 1분기 대비 4% 감소한 총 773톤을 수입하였다.

세계컨테이너지수(WCI)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해상 운임은 2023년 4분기 대비 상승하였고, 이러한 상승은 통조림 가격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EU의 모로코, 스위스행 수출은 감소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수출 또한 감소하였다. 사우디로의 수출 가격은 톤당 8,714유로라는 고가를 기록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7월 23일자

한국의 베트남 참치 수입량 급증

소비 트랜드의 합리적 가격 제품 변화 영향

베트남 수산물 수출 및 생산자 협회(VASEP)에 따르면 베트남의 한국으로의 참치 수출이 지난 3개월 동안 세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6월 한 달에만 수출액이 약 600만 달러에 달해 2023년 같은 기간에 비해 6배나 증가하였다.

VASEP의 참치 시장 전문가인 응우옌 하는 한국으로의 가공 참치와 통조림 수출의 탄탄한 성장세를 강조하였다.

현재 가공 및 통조림 참치 제품은 베트남의 전체 참치 수출액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찐 냉동 가다랑어 참치가 주요 제품이다.

나트랑의 한 수산물 업체 대표는 한국의 수산물 소비 트렌드가 보다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VASEP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한국으로의 참치 누적 수출액은 1,400만 달러를 돌파하며 전년대비 144% 증가하였다. 한국은 현재 베트남 참치의 10대 시장 중 하나가 되었으며, 현재 약 15개의 베트남 기업이 한국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VASEP은 가다랑어 원어의 국내 공급 감소로 인해 2024년까지 현재의 성장률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법령 37에 명시된 최소 체장 제한 규정 때문이다.

* 출처: Vietnam Investment Review, 2024년 8월 6일

참다랑어 어획에 관한 국제회의, 일본에서 시작

日, 다랑어 쿼터 대폭 증가 요청

7월 10일 홋카이도 쿠시로에서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량에 관한 국제회의가 시작되었으며, 일본은 자원 회복을 고려하여 어획 쿼터를 대폭 늘릴 것을 요청하였다.

일본은 중서부 태평양에서 30kg 이상의 대형 참다랑어에 대한 연간 쿼터를 2.31배 늘리고, 소형 참다랑어에 대해서는 30% 증량을 요구하고 있다.

사카모토 테츠시 수산부 장관은 회담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참치 자원의 현재 상황을 반영해 쿼터를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현재 대형 참다랑어의 연간 쿼터는 7,609톤으로 일본에 5,614톤이 할당되어 있으며, 소형 참다랑어는 4,725톤으로 일본에 4,007톤이 할당되어 있다.

참다랑어는 고급 초밥으로 사용되는 등 일본에서 인기가 높다. 2022년 수산부의 조사에 따르면 냉장 참다랑어의 평균 도매가격은 1kg당 2,700엔으로 눈다랑어(1,700엔), 날개다랑어(500엔)보다 높았다.

홋카이도에서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북방위원회와 전미 열대 다랑어위원회가 공동 실무 그룹 회의를 토요일까지 개최하고, 북방위원회는 월요일부터 이틀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내년과 그 이후의 쿼터 세부 초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 출처: The Japan times, 2024년 7월 11일

일본의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 쿼터 증가 예정

대형어 50%, 소형어 10% 증가 합의

7월 16일 각국은 일본의 태평양 참다랑어 연간 어획 쿼터를 늘리기로 합의하였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북방위원회 회원국들은 일본의 30kg 이상 대형 참다랑어 연간 쿼터를 현재 수준에서 50%, 소형 참다랑어 쿼터를 10% 늘리기로 합의하였다.

일본은 대형 참다랑어 연간 쿼터를 2.31배, 소형 참다랑어 연간 쿼터를 30% 늘려달라고 요구하였다.

7월 16일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 쿠시로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11월과 12월에 피지에서 열리는 연례 WCPFC 회의에서 공식화되어 내년에 발효될 예정이다.

현재 대형 참치의 연간 총쿼터는 7,609톤이며 일본에 5,614톤이 할당되어 있고 소형 참치는 4,725톤이며 일본에 4,007톤이 할당되어 있다.

* 출처: Jiji.com, 2024년 7월 16일

태평양 참다랑어, 대중화될 수 있을까?

어획량 증가 권고, 소비자 가격 하락에는 영향 적어

태평양 참다랑어 관리 이해당사자들은 7월 16일 홋카이도 쿠시로에서 열린 회의에서 어획 한도를 늘리기로 합의하였다. 권장 사항에는 대형 참다랑어는 50%, 소형 참다랑어는 10%의 어획량 증가가 포함된다. 바다의 '블랙 다이아몬드'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탐내는 진미로 알려진 참다랑어는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더 저렴해질 수 있다.

어획 한도는 11월에 열리는 연례 회의 비준을 위해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가 레스토랑과 식료품점의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다.

"자연산 참치의 가격은 품질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 어획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낮아질 것이며, 공급이 더 쉬워질 것이다."라며 참치 전문점의 사장은 쿼터 확대에 대해 낙관하며 말하였다.

전통적으로 참다랑어는 다른 참치 품종에 비해 높은 도매가격을 받아왔다. 2024년 5월 도쿄도 중앙 도매시장의 거래 가격은 자연산, 양식 및 수입 냉동 참다랑어의 경우 kg당 3,210엔(미화 20.60달러)이었다. 반면 황다랑어와 눈다랑어는 각각 1,133엔(7.30달러)과 1,145엔(7.45달러)으로 훨씬 저렴하였다.

동시에 참다랑어의 거래 가격은 이미 하락 추세에 있다. 구로몬 시장의 참치 가게 사장은 지난 1년 동안 참다랑어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받았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가격 하락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처리수 방출과 관련된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에 따른 것이다.

또한 몰타 및 기타 지역의 참치 수입이 증가한 것도 가격 인하에 기여하였다. 그는 수입 참치 가격이 상당히 하락하였다고 언급하였다. 2022년 12월 도쿄도 중앙 도매시장에서 냉동 참다랑어는 kg당 4,212엔(27달러)에 판매되었다. 이는 현재 도매가격보다 kg당 약 1,000엔(6.40달러)이 더 비싼 가격이었다.

어획 쿼터 확대는 이러한 가격 하락 추세를 더욱 가속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업체가 가격 인하로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회전 초밥 체인점인 쿠라 스시는 고정 가격으로 장기 계약을 맺고 있다. 이 회사의 홍보 대변인은 "조달 비용이 즉시 감소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대변인은 인건비와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참다랑어 조달 가격이 낮아지더라도 제품 가격을 인하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라고 언급하였다.

긴다이대학교 세계경제연구소의 교수는 "거래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인건비와 사료비 상승은 어민과 양식업자들에게 장기적으로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어민들의 입장에서 공급 시스템이 축소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는 "쿼터 확대가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지었다.

* 출처: JapanForward, 2024년 7월 24일

美 참치 등 수산물 통조림, 6월 소매 매출 증가

약 2억 5,700만 달러…전월 대비 3% 증가

미국 노동통계국(이하, BLS) 조사에 따르면 6월 상온보관 수산물(참치 포함) 가격은 전월 대비 다소 하락하였으나, 해당 부문의 매출은 증가하였다.

BLS에 따르면, 6월 신선-냉동-상온보관 전 부문의 수산물 가격은 전년도 동월 대비 1% 하락하였으나, 5월에 비하면 0.7% 상승하였다. 이는 월말 신선 수산물의 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관측된다.

상온보관 수산물(참치 포함)의 가격은 전년도 동월 대비 1.2% 상승하였으나, 2024년 5월에 비하여 1.6% 하락하였다.

데이터 회사 Circana와 210 Analytics에 따르면 상온보관 수산물(참치 포함)의 6월 매출은 전월 대비 3% 증가한 2억 5,700만 달러이다. 신선 수산물 매출은 3% 감소한 6억 6,600만 달러이며, 냉동 수산물 매출은 3.8% 감소한 6억 600만 달러이다.

미국의 6월 소비자 식품 지수는 5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하였고, 2023년 6월에 비하면 2.2포인트 상승하였다. 6월 가정 내 식사 비용은 5월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생선, 육류, 가금류, 계란의 6월 지수는 5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하였다. 6월 외식비 지수는 5월 대비 0.4포인트 상승하였고, 작년 6월에 비하면 4.1포인트 상승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7월 18일자

미쓰비시, 이탈리아 기업에 프린스社 매각 완료

약 7억 파운드 규모

이탈리아의 Newlat Food社가 일본 미쓰비시 그룹으로부터 영국 식음료 기업 프린스(Princes) 그룹의 인수를 완료하였다. 인수 규모는 약 7억 파운드(약 8억 9,700만 달러)이다.

5월 처음 발표된 해당 거래에서, Newlat은 자사의 기존 사업 및 자회사를 Princes와 통합하면서, 사명을 '뉴 프린스(New Princes)' 그룹으로 변경하였다.

Newlat에 따르면, 뉴 프린스 그룹은 28억 유로의 매출과 전세계 31개 공장, 8,800명의 직원, 30개 이상의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이 될 것이다.

Newlat 측은 새로 합병된 그룹에서 2030년까지 매출 50억 유로 달성 및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 차감 전 이익 3억 1,700만 유로, 순수익 1억 유로, 주주 자본 7억 유로 등의 목표를 밝혔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7월 30일자

태국, 신규 어업 정책으로 원양 선단 확대 추진

자체 참치 공급 목적 예상

태국 정부는 자국의 미래 어업을 주도할 프레임워크인 '어업 정책 및 관리 계획' 초안을 준비하였다. 이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5개 분야 중 하나는 EEZ 외부 어업 및 선단 확장으로, 이는 참치 어업을 염두에 둔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은 자국 통조림 가공 산업에 직접 참치를 공급할 선망 선단이 없으므로, 중서부태평양과 인도양에서 조업하는 해외 선단의 공급에 의존한다. EU-태국 간 FTA 협상에서 원산지 어획물 규정은 태국이 참치 통조림을 무관세로 EU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제안된 계획은 5년의 이행 기간을 두고 있으며, 5개 분야에서 개발을 가속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중 하나는 원양 어업으로, 태국 정부는 연안국과의 협상 및 인도양다랑어위원회(IOTC)나 남인도양어업협정(SIODA)과 같은 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국제 수역에서 선단을 늘리고자 한다. 계획의 이행에 대한 세부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으나, 합작 투자 및 선박 국적의 태국 국적으로의 재등록 등이 진행될 수 있다.

* 출처: Atuna, 2024년 7월 29일자

타이유니온, 냉동고 신설에 1,400만 달러 투자

약 8,000톤 규모…인근 자회사 공장에 참치 공급

타이유니온은 지난 7월 25일, 가나에 8,000톤 규모의 냉동고를 공식 개장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냉동고는 자회사인 Pioneer Food Cannery(이하, PFC)社가 운영하는 인근 제조 공장에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타이유니온은 성명을 통해 이 냉동고가 가나 수도 아크라에서 동쪽으로 약 35km 떨어진 테마시에 위치한 PFC 통조림 공장에 공급할 대서양 참치를 일 년 내내 온도 조절이 가능한 상태로 보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이유니온은 4개의 보관 및 분류 시설에 1,40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냉동고는 이미 운영 중이기 때문에, PFC가 도시 전역에 흩어져 있는 냉동 보관 공간을 임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PFC는 1973년부터 운영하여 왔으며 2010년 타이유니온에 인수되었다. 이 회사는 약 1,1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John West, Petit Navire, MareBlu와 같은 브랜드와 유럽의 자체 상표 고객, 가나 국내 브랜드인 Starkist를 대상으로 한 제품을 생산한다.

* 출처: Intrafish, 2024년 7월 26일자

트라이 마린, 참치 어획 증가 위해 조업선 신조

솔로몬 수역에서 연간 2만 5천톤의 참치를 어획

대만에 본사를 둔 푸롱 마린은 서부 뉴조지아주의 트라이 마린을 위하여 새로운 참치 선망 어선을 신조하였다. 새 어선의 이름은 '솔로몬 다이아몬드'이다. 가오슝에 위치한 선박 건조 회사인 푸롱 마린(Fu Long Marine)이 건조하였다.

새로운 이 어선은 국립수산개발(이하, NFD)의 참치 어획량을 늘려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솔로몬 제도에 도착한 후 이 선박은 호니아라에 등록될 예정이다.

푸롱 마린의 성명에 따르면 솔로몬 다이아몬드의 도착은 선주(트라이 마린)와 건조 단계에 참여한 여러 회사에도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한다. 트라이 마린은 NFD를 소유하고 있다. NFD는 현재 솔투나에 참치를 공급하고 있지만 수요를 맞출 수 없어 선박을 추가하게 되었다.

몇 년 전 솔로몬 수산해양자원부 장관은 트라이 마린이 운영하는 참치 산업이 연간 3억 달러의 국가 예산에 이바지한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솔로몬 제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솔로몬 다이아몬드는 NFD 어선에 9번째로 추가되는 선박이다. 이 어선이 언제 솔로몬에 도착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1977년 국영기업으로 설립된 NFD는 현재 트라이 마린 소유의 성공적인 민간 어업회사로 성장하였다.

NFD는 5척의 선망 어선과 3척의 연승 어선으로 연간 약 2만 5,000톤의 참치를 어획하여 현지 통조림 업체인 SolTuna와 해외 바이어에게 공급하고 있다.

이 선단은 약 3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솔로몬 제도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각 선박은 MSC 및 공정 무역 인증을 받았다.

선단은 솔로몬 에메랄드, 솔로몬 제이드, 솔로몬 루비, 솔로몬 펄, 솔로몬 오팔, 솔로몬 헌터, 솔타이 101 및 솔타이 105이다.

* 출처: Solomon Star, 2024년 7월 30일

신라교역, WCPO에서 지속 가능 인증 완료

평가 단위 모두 80점 이상의 우수한 점수 받아

신라교역은 키리바시, 투발루, 미크로네시아, 파푸아뉴기니, 마셜제도, 솔로몬제도, 토켈라우, 나우루, 팔라우 등 모든 나우루협정당사국(PNA) 수역에서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어획에 대해 MSC 인증을 받았다.

공개 인증 보고서는 7월 5일에 발표되었으며, 대상 어종, 생태계 영향, 관리 시스템 등 세 가지 평가 단위에서 모두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신라는 작년에 WCPO(서태평양) 수역에서 지속 가능한 인증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7월 11일자

대서양 황다랑어 추적

더욱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자원 관리 능력 향상 가능

참다랑어와 마찬가지로 황다랑어는 수천 마일을 이동하는 회유성 어종이다. 하지만 멕시코만, 카리브해에서 황다랑어를 잡았다면 미국 북동부 해안에서 잡은 것과 완전히 다른 물고기일까? 이런 질문은 어업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대서양에서 황다랑어는 지역 어업 관리 기구인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이하, ICCAT)에서 관리하며, 다랑어의 개체수를 연구하고 개체수 추세를 평가하며 규제와 쿼터를 통해 어업을 관리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임무의 일환으로 ICCAT는 정기적으로 자원 평가를 시행하는데, 이는 남획 여부를 포함한 어류 개체군의 전반적인 상태를 포함한다.

반면, 위성 태그 데이터에 따르면 멕시코만 등 일부 지역의 황다랑어 중 일부는 국지적인 움직임만 보이며 평생 그 지역에 생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성을 더하기 위해 대서양 중부와 멕시코만에서 어획된 황다랑어의 이석 데이터는 이 지역의 어류가 네 가지 주요 산란지에서 모두 유래하며, 개별 산란지의 상대적 기여도는 해마다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NOAA 수산과학센터 등 연구팀은 2010년부터 주요 황다랑어 어획 지역에 100개 이상의 팝업 위성 태그를 설치하여 최대 319일 동안 어류의 움직임을 추적하였다.

북서대서양에 태그가 부착된 황다랑어는 적어도 연간 단위로는 지역 간 이동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미국 북동부 외곽에서 북동쪽 협곡까지 미국 북동부 연안에서 태그가 부착된 황다랑어 26마리 중 서부 대서양 산란 지역인 멕시코만이나 카리브해로 이동한 개체는 한 마리도 없었다. 마찬가지로 카리브해에 태그가 부착된 개체는 방류 후 최대 6개월간 이 지역 전역에서 광범위한 이동을 보였지만 멕시코만이나 미국 북동부 쪽으로 이동하지 않았다.

위성 태그 데이터에서 지리적 이동은 단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황다랑어가 수층에서 시간을 보내는 곳은 태그가 부착된 지역 전체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팝업 위성 태그 데이터에 따르면 황다랑어는 수심 상부 200미터에서 97%, 상부 50미터에서 58%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그가 부착된 황다랑어는 전체 시간의 82%를 21도 이상의 따뜻한 바다에서 보냈으며, 그중 66%는 27도에 가까운 바다에서 보냈다. 따뜻한 표층수를 선호하지만, 황다랑어는 깊은 수심과 차가운 물 속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황다랑어가 가장 깊게 들어간 곳은 890미터였고 가장 추운 수온은 5도 이하였다.

위성 태그 데이터를 종합하면, 지역적으로 일관된 행동을 보이지만 지역 간 연결성이 강하지 않았다. 2018년부터 미국 북동부 베치 캐니언에서 2마리, 허드슨 캐니언에서 2마리, 오리건 입구에서 1마리 등 총 5마리의 황다랑어가 방류 532일에서 967일 이후 아프리카 연안에서 다시 어획되었다. 이러한 재어획은 미국 북동부 연안에서 관찰되는 황다랑어 중 적어도 일부가 산란을 위해 아프리카 연안으로 다시 이동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대신, 황다랑어 성어는 산란을 위해 긴 여행을 1~2년에 한 번씩만 하고, 이동 준비가 되지 않은 해에는 미국 북동부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 출처: On the water, 2024년 7월 10일

ISSF “참치 자원 11종, MSC 표준 충족”

2023년 8종 대비 증가

국제수산물지속가능재단(이하, ISSF)의 참치 자원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상업용 다랑어류 자원 23종 중 11종이 해양관리협의회(이하, MSC)가 남획되지 않고 정해진 어업 표준에 맞는 목표 생물량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3월 발표되었던 보고서에서 8종이 표준을 충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개선된 결과이다.

2023년 MSC의 ‘제1원칙(자원이 남획 또는 고갈을 불러오지 않는 방식으로 어획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였던 8종은 서대서양 가다랑어, 북대서양 날개다랑어, 남대서양 날개다랑어, 동대서양 참다랑어, 서태평양 가다랑어, 동태평양 황다랑어, 동태평양 가다랑어, 인도양 가다랑어이다.

ISSF는 여기에 서태평양 황다랑어, 서태평양 눈다랑어, 남방참다랑어 자원이 현재 MSC 제1원칙을 충족하게 되었다고 확인하였다.

‘제1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는 12개 종은 다음과 같다. 대서양과 지중해 5종, 태평양 4종, 인도양 3종. 눈다랑어, 날개다랑어, 황다랑어 중 모두 9종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동대서양 가다랑어는 전세계 가다랑어 종 중에서 유일하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7월 29일자

세이셸 수역 2023년 선망 어획량, 약 40% 감소

기후 변화 영향

세이셸의 상업용 참치 어업은 2023년에 기후 변화로 인하여 침체에 직면하였으나, 영세 장인 어업은 여전히 좋은 어획량을 기록하고 있다.

세이셸 장-프랑수아 페라리 수산청장은 세이셸의 2023년 선망 어획량이 약 40%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수산청장에 따르면, 엘니뇨와 라니냐로 인한 생태계 불균형이 인도양 선망 어획량 감소의 원인이다. 기상 이변이 해수면온도와 해류 이동에 큰 영향을 미쳤고, 심해 어류의 분포에도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수산청장은 2023년 선망 어획량이 40만 3,000톤에서 37만 3,000톤으로 약 10%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세이셸 수역에서의 어획량은 11만 3,566톤에서 6만 9,000톤으로 더욱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지역 수산업 부문에 관한 한 연구에 따르면, 영세 장인 어업은 지난 20년간 어획량을 유지하였고, 심지어 증가하기도 하였다. 소규모 보트를 이용한 해당 어업의 참치 어획량은 2016년 2,500톤이었으나 2023년에는 5,700톤으로 증가하였다.

페라리는 지난 4월 기후 현상이 세이셸 국적 선단이 작년에 어획한 황다랑어의 양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7월 17일자

타임誌, 中 오징어 선단 문제 실태 심층 보도

중국의 현지 합작선 IUU 및 인권침해 문제 지적

세계 최대 주간지 중 하나인 타임(TIME)지가 중국 원양 오징어 선단의 불법 조업 및 선상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심층 기사를 기재하였다.

타임지는 기사 서두에서, 2016년 중국 오징어 어선 루얀위안유(Lu Yan Yuan Yu) 10호가 아르헨티나 EEZ 내에서 불법 조업 중 해안경비대에 발각되자 순찰선에 충돌을 시도하였다가 함포 사격에 침몰한 사건을 인용하였다. 타임지에 따르면 중국 선단 중 상당수는 위치 추적 장치를 끈 채로 아르헨티나 EEZ를 침범한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2010년 이래 불법 어업으로 의심되는 중국 어선 최소 11척이 추방당하였다.

루얀위안유 10호의 침몰 사고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연방어업위원회는 2017년 외국 선박 2척에 아르헨티나 국적으로 자국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하였다. 해당 선박은 현지 회사를 통하여 아르헨티나 국적을 부여받았으나, 실질적 소유자는 루얀위안유 10호의 소유자였던 중국 국영기업 CNFC였다.

타임지는 이러한 현상이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하였다. 지난 30년간 중국은 2위 국가보다 3배 이상 많은 6,000척 이상의 어선으로 세계 해상에서 우위를 점하였다. 중국 선단은 국제 수역에서 특정 국가 EEZ로 침범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목표 EEZ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여 조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아르헨티나 국적을 보유한 최소 62척의 상업용 오징어 어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아르헨티나 오징어 선단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타임지는 이러한 선박 중 상당수가 선상 불법 행위에 연루되어 있으며,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선박에서 어획한 수산물 상당수가 미국과 유럽 국가로 수출된다고 지적하였다. 타임지에 따르면 중국이 전세계에서 해외 국적으로 운영하는 선박의 수는 약 250척이다.

이러한 추세는 특히 아프리카에서 두드러진다. 중국 기업은 아프리카의 최소 9개국 수역에서 해당 국가 국적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가나에서는 135척 이상이 이러한 방식으로 조업 중이다. 환경정의재단의 2018년 발표에 따르면, 가나에서 조업 중인 트롤선의 최대 95%가 중국의 통제하에 있다.

중국은 또한 태평양 전역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이 2022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선박은 피지, 솔로몬제도, 미크로네시아와 해당 국가의 국적선으로 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타임지는 또한 Outlaw Ocean Project의 조사를 인용하여 중국 선단의 선원 인권 침해 및 기타 불법 행위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약 12개 국가 국적으로

활동하는 중국 통제 하의 선박 50척 이상이 불법 어업, 노동 착취, 미보고 전재 등의 문제에 연루되었다. 가나의 선상 옵서버가 선상 작업 도중 실종된 사건이 있었고, 또한 선박 중 4척은 태평양에서 EEZ 근처를 항해하는 동안 한 번에 하루 이상 자동 추적 시스템을 끄는 행동을 보였다.

Outlaw Ocean Project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항구에 평균적으로 두 달에 한 구의 시신이 유기되었는데, 대부분은 중국 오징어 선박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사례 중 일부의 사망 원인은 비타민 B1 결핍으로 인한 각기병으로, 전문가들은 이것이 심각한 방치의 징후라고 지적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2013년과 2021년 사이에 중국 어선 14척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최소 24명이 각기병과 관련된 증상을 겪었고, 이 중 최소 15명이 사망하였다. 조사에서는 또한 강제 노동, 임금 절도, 폭력, 여권 압수 및 의료 서비스 박탈 사례가 수십 건 보고되었다.

* 출처: TIME, 2024년 8월 1일자

최신 연구 “오징어 색소, 자외선 차단 효과”

세척 시에도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아

노스이스턴 졸업생과 부교수는 문어와 오징어의 색소에서 영감을 받아 피부관리 원료 회사 Seaspire를 공동 설립하여 피부와 환경에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화장품 과학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오징어 등 두족류에서 발견되는 분자의 합성 버전인 잔토크롬이 자외선 차단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피부 손상의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자외선 차단제의 필터에는 많은 독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안전성 연구 결과가 중요하다.

특히 일부 화학 자외선 필터는 환경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부에 스며들어 전신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활성 산소종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갈색의 질감이 있는 파우더로 생산되는 잔토크롬은 강력한 항산화 및 피부 회복 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광노화를 방지하는 빛 산란 특성도 가지고 있다.

가장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이 자외선 차단제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성분으로 간주하는 산화아연의 자외선 차단 효과를 28%, 가시광선 차단 효과를 45%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잔토크롬은 일반적인 제형에 사용되는 것보다 5배 높은 농도에서도 피부손상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도 안전하며 환경에도 안전한 제품을 만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출처: Phys.org, 2024년 7월 22일

FAO “2022년 살오징어류 어획량, 31% 감소”

총 6만 9,666톤

유엔 식량농업기구(이하, FAO)에 따르면, 2022년 살오징어류 세계 어획량은 전년 대비 31% 감소한 6만 9,666톤이다. 주요 어획국의 경우, 일본의 어획량은 8% 감소한 2만 9,700톤, 한국은 40% 감소한 3만 6,549톤, 13년부터 어획이 눈에 띄는 러시아는 54% 감소한 3,417톤이다.

아메리카 대왕오징어(훔볼트오징어)는 8% 증가한 107만 6,428톤이다. 그중 페루산은 12% 감소한 45만 7,364톤, 중국산이 22% 증가한 51만 4,512톤, 칠레산이 82% 증가한 9만 7,687톤이다. 집계에는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또는 무라사키 오징어라고 불리는 “Neon flying squid”가 포함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 일렉스 오징어의 어획량은 19% 감소한 39만 6,358톤이었다. 이 중 아르헨티나산은 26% 증가한 16만 7,109톤이나, 중국산은 46% 감소한 7만 5,000톤, 대만산은 56% 감소한 6만 4,196톤이다. 캘리포니아 로리고 오징어는 37% 증가한 6만 6,549톤, 캐나다 일렉스 오징어는 49% 감소한 1만 7,607톤이었다.

문어류 생산량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38만 8,996톤이었다. 이 중 중국산은 3% 증가한 10만 9,971톤, 모로코산은 17% 감소한 5만 2,453톤이다. 멕시코산은 14% 감소한 4만 359톤이다. 모리타니아산은 21% 증가한 3만 2,896톤, 인도산은 77% 증가한 2만 2,532톤이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7월 30일

냉동 살오징어류, 남미 오징어류 어획 부진

중국 선단 적도 오징어도 고가

남미 국가의 아메리카 대왕오징어(훔볼트오징어) 어획량이 좋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페루의 1~4월 어획량 누계는 작년 1월 한 달 수준(5만 6,912톤)과 비슷한 5만 8,151톤이다. 칠레는 어기의 종료가 가까워지는 와중, 악천후로 인하여 출어하지 못하는 날이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르헨티나 EEZ 내에서 어획되는 아르헨티나 일렉스오징어 어업은 조업 종료가 거의 가까워졌다. 1월부터 6월 18일까지의 어획량은 15만 2,956톤으로, 전년도 누계인 15만 3,284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포클랜드 제도에서 조업하는 대만 선단은 1미당 300~400g, 400~600g의 대형을 중심으로 약 11만 톤을 어획하였다.

적도상에서의 소형 빨강오징어의 어획량은 저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아르헨티나 일렉스 오징어 조업을 하던 중국 선단은 적도가 아니라 페루 공해에서 조업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6월 하순 시점의 중국 국내 가격은 1미당 500g 이하 톤당 1만 8,000~1만 8,500위안, 500g~1kg이 1만 6,000~1만 6,500위안, 1~2kg이 1만 2,500~1만 3,200위안, 2~4kg이 1만 2,000~1만 2,800위안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7월 18일자

러, 2024년 명태 130만 톤 이상 어획

세계 명태 어업 선두 유지

"극동 어업 수역의 모든 어업 지역에서 2024년 첫 6개월 동안 명태 생산량은 130만 8천 톤에 달하였으며 이는 2023년보다 2만 1천 톤(1.6 % 증가)을 더 어획하였다. 주요 제품 생산량은 68만 7천 톤으로 1.3% 증가하였다. 러시아는 이제 세계 최대 명태 생산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 2위 생산국인 미국의 명태 어획량은 78만 7천 톤을 기록하였다."라고 러시아 명태협회장은 말하였다.

그는 FAO에 따르면 올해 세계 명태 어획량은 12% 증가한 370만 톤으로 러시아가 선두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명태협회는 2024년 러시아의 생산량을 약 2백만 톤 수준으로 예측한다고 말하였다.

명태협회장에 따르면 세계 시장의 상황은 계속해서 어렵고 명태 생산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명태 필렛 수출 시장의 감소로 인해 생선 생산자들은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상품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7월 4일까지 냉동 명태 생산량은 2023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 증가, 연육 생산량은 24% 증가하였다. 반면 필렛 생산량은 10% 감소, 민스는 13% 감소하였다.

서베링해 수역 TAC는 70만 톤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15년 동안 최대치이다. 현재 79척의 러시아 어선이 이 지역에서 명태 트롤 어업을 하고 있다.

명태협회장은 어기 초 불안정한 조업 상황으로 인해 7월 4일까지 14만 5,500톤이 어획되었으며 이는 2023년 수준보다 28% 낮은 수치라고 지적하였다. 어민들은 베링해 어기가 연말까지 지속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현재 러시아 어선단은 2024년 어기에도 1월~4월 오호츠크해 포란 명태 조업, 이른바 'A시즌'을 마치고 제2 주요 어장인 서베링해에서 조업 중이다.

금년 2024년 어기의 100일간에 이르는 오호츠크 주요 3수역(캄차카·쿠릴/서캄차카/북부 오호츠크) "A시즌"의 어획량은 82만 7,000톤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2만 4,000톤 증가하였다.

성어기에는 115척의 트롤 어선이 명태 조업에 착수하면서 하루 어획량은 최대 1만 톤을 기록하였다.

조업 완료 시점에서 오호츠크해 주요 3개 해역의 명태의 TAC 소진율은 87%로, 과학연구기관에 의하면 어업 상황 및 조업 노력량을 감안했을 때, 해당 수역의 연말까지의 TAC 소진율은 93~94%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A시즌" 제품 생산의 경우, 일련의 제재 조치로 인한 해외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필레와 민스를 전년과 같은 수준인 6만 톤으로 생산하였고, 연육을 40% 증가하여 3만 톤까지 끌어올렸고, 냉동 명태 원어 및 H&G도 8% 증가하였으며, 명란도 증가하여 생산하였다.

서베링해 수역의 TAC는 70만 톤으로, 최근 15년간 최대치이다. 79척이 해당 수역의 조업에 착수하였으며, 2024년 7월 4일까지의 생산량은 14만 5,000톤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28% 감소하였다. 연말까지 조업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어획 상황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 출처: Fishnews; 홋카이도 기선련, 2024년 7월 26일자

FAO, 세계 명태 가격 하락 전망

가격 하락은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명태 어획량이 증가하면 명태 가격이 더 하락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더 비싼 수산물에서 명태 구매로 이어질 것이다.

전문가들은 2024년 세계 명태 어획량이 12% 증가하여 37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어획량 증가는 이미 거의 23%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추세는 2024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FAO 전문가들은 말하였다.

가격 하락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생선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FAO는 공급 증가가 명태 연육 생산 증가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러시아 연육 생산자들은 해마다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FAO 추정에 따르면 2024년 연육 생산량은 2023년 5만 4,000톤에서 8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가 생산량이 중국에 공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본으로 수출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일본은 지난 7년간 연육의 비축량이 최고 수준에 달하였다.

* 출처: Veta&Life, 2024년 7월 19일

러시아, 어획량 전년 수준 유지

극동 수역 및 북부 수역 어획량 전년 대비 증가

러연방수산청 조업감시센터에 따르면 2024년 7월 16일까지 러시아 조업선의 수생 생물 자원 총어획량은 270만 톤 이상으로 전년도 수준보다 5,500톤 더 많은 양을 어획하였다. 수역별 어획량은 다음과 같다.

극동 수역 200만 톤 이상(0.8% 증가), 북부 수역 29만 4천 톤(5.9% 증가),

서부 수역 5만 5백 톤, 아조프-흑해 수역 1만 7,100톤, 볼가-카스피 분지-4만 6,100톤, 외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협약 수역 및 공해에서 러시아 조업선은 거의 26만 톤을 어획하여 국가 식량자원 확보에 이바지하였다.

※ 출처: 러연방수산청, 2024년 7월 16일

어획량 증가로 명태 가격 하락 예상

어가 하락과 생산량 증대로 대구와 경쟁

FAO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명태 어획량 증가로 인해 명태 제품 가격이 더 하락할 것으로 예측한다. 동시에 명태에 대한 수요는 대구 공급 감소를 자극할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2024년 세계 명태 어획량은 지난해 대비 12% 증가한 37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러시아는 여전히 주요 생산국이 될 것이다. 작년에 러시아는 190만 톤의 명태를 어획하였으며, 올해는 2백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높은 수준의 명태 생산량은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FAO 분석가들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시장에서 명태 제품의 평균 가격은 23% 하락하였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2024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구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낮은 가격과 시장 공급량으로 인해 명태는 대구와 경쟁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참고로, 미국은 러시아산 생선 수입 금지 이후 대구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Sfera.fm, 2024년 7월 19일

세계 명태 시장, 2032년 약 32억 달러로 성장

국제시장조사기업 추산

세계 명태 시장 규모는 성장을 거듭하여 2032년에는 31억 8,000만 달러 규모에 도달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홋카이도 기선어업협동조합연합회가 국제 시장조사 기업 IMARC그룹의 추산을 인용하여 전하였다.

해당 기업의 조사에 따르면 명태의 세계 시장은 2024년부터 연평균 4.74% 수준으로 완만하게 성장한다.

한편, FAO와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실질 가격은 향후 10년간 연 마이너스 0.6%의 성장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수산물의 절대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에 흡수되기 때문이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7월 18일자

美,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규제 강화 촉구

공정 경쟁 패배로 정치적 개입 시도

미국 최대 명태 생산업체인 아메리칸 시푸드 그룹(이하, ASG)의 대표는 러시아 어민들과의 무역 전쟁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는 러시아가 아시아 국가에 연육의 공급을 늘리고 심지어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좋아하지 않는다.

미국은 생산량을 줄이고 러시아 제품에 대한 새로운 무역 제한을 모색해야 한다. ASG의 CEO는 언더커런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러시아는 연간 20만 톤의 연육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생산량을 줄이고 무역 장벽을 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러시아 어업자들의 치열한 가격 경쟁에 대응하는 데 필요하다. 그에 따르면 러시아는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하여 아시아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한다. "러시아는 무역 전쟁의 길에 들어섰다." 이 회사는 주로 EU와 일본에서 러시아산 연육에 대한 제한을 추진하기 위해 모든 로비 역량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특히 러시아산 원료로 만든 제품의 공급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금지는 이미 미국에서 도입되었으며 그는 EU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언더커런트 뉴스에 따르면, 러시아의 이러한 유형의 제품 생산량은 2028년까지 현재 8만 1,000톤에서 16만 3,000톤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2023년 미국산 연육의 생산량인 19만 5,000톤과 비슷한 수준이다. 동시에 미국 어업자들은 이미 명태 어업의 "A"어기가 끝날 때 생산량을 10% 줄이기 시작하였다.

미국 어업자들은 러시아에서 일본으로의 연육 판매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인해 손실을 겪고 있다고 언더커런트는 보도하였다. 작년에 러시아 어민은 러시아에 1만 2천톤의 연육을 공급하였다. 5월 일본의 평균 수출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 하락한 톤당 2,159달러를 기록하였다. 7월에는 EU에서의 연육 가격은 톤당 2,200~2,400달러로 지난해 가격의 절반 수준이다.

전 러시아 수산물 생산자 협회(VARPE)의 회장은 러시아와 미국이 세계의 주요 명태 생산국이나, 미국은 공정 경제 경제에서 패배하고 있으며, 끝없는 무역 장벽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앞서고 있다고 말하였다.

"연육과 필렛은 미국 명태 어업의 두 가지 주요 제품이다. 작년에 미국은 19만 5천 톤의 명태 연육과 15만 6천 톤의 필렛을 생산하였다."라고 명태 협회장은 말하였다.

미국 수산물 생산자들은 러시아 생산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에서 패배하고 있으므로 정치에 개입하려고 한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명태 연육 부문을 지배해 왔지만, 러시아는 2021년에야 상업 생산을 시작한 새로운 플레이어이다. 미국 어업자들은 단순한 시장 변동도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VARPE 회장은 덧붙였다.

명태 협회장에 따르면 미국 연육의 주요 시장은 일

본이지만 최종 수요가 둔화하고 가격이 급격히 하락(전년 대비 30%) 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일본 엔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 때문이다. 올해 연육 수입량은 5,500톤 증가하였고, 일본 내 연육 재고량은 6,500톤 증가하였다.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는 러시아 연육이 미국 제품을 추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눈에 띈다. 예를 들어 2021년까지 한국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이 거의 100%였다면 2022년에는 90%로 하락하였고 2023년 말에는 60%로 하락하였다. 중국의 연육 공급 상황도 유사하다.

지난 몇 달 동안 미국인들은 러시아산 생선 공급 제한을 점점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앞서 미국의 어업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인 알래스카와 메인주의 상원의원들은 러시아 어업에 대한 MSG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앞서 알래스카 어업자들은 러시아산 값싼 생선의 시장 공급 과잉으로 인해 손실을 보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 출처: Fishnet, 2024년 8월 6일

美 명태 기업, 러산 수산물 MSC 배제 등 요청

러시아산 수산물 국제 유통 제재 강화 목적

미국 최대 선상 명태 가공업체인 아메리칸시푸드(American Seafood)社의 CEO인 에이나르 구스타프손은 러시아산 수산물의 유통 제재 강화에 대하여 지지를 표명하며, 지난 7월 9일 미국 알래스카주 상원의원 댄 설리반(Dan Sullivan) 의원과 리사 머코스키(Lisa Murkowski) 의원을 만나 해당 문제를 주제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의 요구에는 해양관리협의회(이하, MSC)의 러시아산에 대한 인증 발급 및 사용의 금지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 4월 1일, 설리반, 머코스키 의원과 메인주 상원의원 수전 콜린스(Susan Collins)와 앵거스 킹(Angus King) 의원은 MSC의 Rupert Howes CEO에게 서한을 통하여 “러시아가 어획한 모든 수산물에 대한 MSC 인증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오호츠크해의 주요 러시아 명태 어장은 2023년 12월에 재인증을 받았다. 최신 인증은 현재 2028년 12월 18일까지 유효하다. 서부 베링해 부분은 2021년 7월 6일에 MSC 인증을 받았으며 2026년 7월 5일에 만료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러시아명태협회(이하, PCA) 측은 유럽 시장이 명태 주요 시장 중 하나로 러시아산 공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러시아산 H&G(드레스)를 중국에서 재가공한 필렛 제품의 시장 비중이 매우 크므로, 유럽 식품가공업체나 유통업체가 이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협회 측은 또한 이들 업계뿐만 아니라 최종 제품 가격 급등으로 소비자들까지 타격을 입어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PCA와 전러시아어업협회(이하, VARPE) 측은 이러한 시도가 경쟁력이 약해진 미국 어업계가 정치력을 동원하여 러시아의 경쟁업체를 몰아내서 유럽 시장을 차지하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하였다.

※ 출처: 홋카이도 기선련, 7월 12일자; UCN; 7월 9일자

러 “연육 일본 수출 증가, 당분간 없을 것”

국제 제재·물류비 상승 등 영향

러시아 업계는 당분간 일본으로의 연육 공급 증가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드러냈다고 홋카이도 기선어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기선련)가 전하였다.

기선련에 따르면, 러시아 명태협회의 알렉세이 부글락 회장은 중국 재가공용 수출을 비롯한 러시아로부터의 원어 수출이 감소 추세라고 지적하였다. 회장은 2023년 공급량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평균 수준보다 약 7% 적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유럽연합(EU)은 러시아의 신규 수출자 리스트의 등록을 정지하였고, 2024~2026년 자율관세할당(ATQ) 제도에서 러시아산 명태를 포함한 주요 수산 제품을 제외하였다. 이에 러시아산은 중국 등 제3국 재가공품을 포함하여 표준과세 13.7%를 부담하게 되었다.

부글락 회장은 물류비 상승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언급하였다. 현재 아시아-유럽 간 물류비는 상승 추세이며, 명태 필렛을 수출하는 비용은 1톤당 430~450달러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회장은 밝혔다.

일본의 경우, 수산물 소비량의 감소로 20년 이상 러시아로부터의 수산 제품 수입이 줄어들고 있으며, 연육 또한 소비량이 감소하였다. 회장은 또한 엔화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명태 자원은 양호하며, 2025년에 TAC를 증가시키는 과학적 권고가 행해졌다. 다만 시장 환경이 좋지 못한 가운데, 업계는 제품 공급 제어를 위해 증대를 요구하지 않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회장은 말하였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8월 7일자

EU, 러시아산 수산물 추가 제재 검토

신선 수산물 제재 검토 예정…미가공 원어 가능성 존재

홋카이도 기선어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기선련)가 독일 미디어를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새로운 제재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여름 휴가 기간에도 해당 내용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선련에 의하면,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검토되는 품목은 「Frischfisch」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직역하면 '신선어'이지만, 어류의 미가공 원어(W/R, Whole Round)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미국은 2022년 7월부터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고, 2023년 12월부터 제3국 가공 제품까지 대상에 포함하였다. 영국은 2022년 7월 러시아산 흰살생선의 수입 관세를 35%로 끌어올린 것 외에 현재는 제3국 가공품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8월 6일자

러 대구 가공업체, 투자 쿼터 위반으로 벌금

투자 쿼터 참여 기업 우려 증폭

러시아 법원이 투자 쿼터 프로그램 조건을 위반한 대형 대구 가공업체를 상대로 제기된 두 건의 소송 중 첫 번째 소송에서 러시아 수산청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새로운 가공 시설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한 수십 개 기업의 우려를 증폭시킬 전망이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모스크바 중재 법원은 개인 소유 기업인 Russian Cod社가 투자 쿼터에 의해 어획한 어획물의 최소 70%를 가공한다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억 4,500만 루블(250만 유로, 270만 달러)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다.

Russian Cod社에 더욱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두 번째 소송은 7월 31일에 열릴 예정이다.

무르만스크에서 두 개의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Russian Cod社에 대한 소송은 러시아의 국가 투자 쿼터 프로그램 참여자를 상대로 러시아 수산청이 제기한 여러 소송 중 하나이다.

이 프로그램은 러시아의 수산물 가공 인프라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에 시작된 것으로, 기업은 신조선이나 가공 공장을 건조한다는 조건으로 어업 쿼터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는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지금까지 러시아 수산청은 이 프로그램에 따라 건설된 25개 가공 공장 중 17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약 60억 루블(6,280만 유로, 6,87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Russian Cod社는 해당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벌금을 부과받는 두 번째 수산물 가공업체이다. 지난 1월, 캄차카에 위치한 Vityaz-Avto社(블라디보스토크에 위치한 Okeanrybflot의 자회사)는 수산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19억 루블(2,17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러시아 북부어업분지 연안어업회장인 발렌틴 발라쇼프(Valentin Balashov)는 "수산청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기업 중 배상금을 한 푼이라도 지급할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을 것"이라며 "이들에게 이러한 배상금 지급은 파산을 의미한다."라고 말하였다.

무르만스크주 주지사인 안드레이 치비스는 앞서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에게 생선 가공 공장에 대한 투자 계약 조건을 재검토하고 징벌적 조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발라쇼프 회장은 치비스 주지사의 호소가 통하지 않을 확률이 높으며, "수산청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99%"라고 말하였다.

발라쇼프 회장은 4월 인터뷰에서, 수산청이 모든 소송에서 승소하면 러시아 어류 가공 산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발라쇼프 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Russian Cod社가 올해부터 원어의 70%를 필렛으로 가공할 수 있는 추가 계약을 체결하면 상황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회장은 "수산청은 공장을 살리는 것보다 Russian Cod社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쪽을 더 선호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하였다.

발라쇼프 회장은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시설을 매입하려 할 사람은 거의 없으므로 매각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투자 쿼터를 할당하여 가공 인프라를 개선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시작하는 것이 애초에 의미가 있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였다.

* 출처: Intrafish, 2024년 7월 26일자

日 연구기관 “꽁치 내유, 올해도 적은 수준 예상”

먹이 부족, 1세어 어체 소형화 등 관측

일본 수산연구·교육기구(이하, 기구)가 8~12월의 꽁치 어업에 관하여 지난 7월 30일 일본 수산청과 합동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꽁치 내유량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낮은 수준에 그칠 것이며, 1세어의 어체는 작년보다도 작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꽁치는 수명이 짧은 편이기 때문에 어군이 0~1세어로 구성된다. 1세어는 비교적 큰 편이지만, 올해는 소형화가 현저하여 어기 전반(前半) 동안에는 90~110g, 후반에는 80~100g대가 주를 이루어, 100~120g대가 주를 이루었던 작년을 밑돌 가능성이 높다. 0세어의 내유 예상은 어렵지만, 예보에 따르면 올해 전반적으로 80~100g대의 어체가 주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체가 줄어드는 원인으로는 “먹이가 적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구 담당자는 설명하였다.

어장은 최근의 경향대로, 올해도 일본에서 먼 공해가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8~9월은 홋카이도에서 쿠릴 열도 우루프 섬 동쪽 연안에 위치한 동경 150~160도의 공해에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10월은 도토(道東, 홋카이도 동쪽), 쿠릴열도 4섬 주변 및 인접한 공해에 어군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해양환경의 변화나 여러 국가의 남획으로 꽁치 자원은 줄어든 것으로 관측된다. 2001~2016년 동안 연간 30만~60만 톤이었던 꽁치 어획량은 2021~2023년에 10만 톤 전후까지 급락하였다. 일본의 꽁치 어획량도 2008~2009년 동안 30만 톤 이상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 이후 1만 8,000톤~2만 6,000톤 수준까지 급락하였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7월 31일자

日 꽁치 수입량, 어획량 부진으로 20% 감소

2023년 일본 통계 근거

꽁치 어획량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일본의 냉동 꽁치 수출입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북태평양을 회유하는 꽁치의 생산국은 일본, 러시아, 대만, 중국, 한국이다. 일본과 러시아는 자국 수역을 내유하는 어군을 어획하며 상호 입역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 어장은 거의 공해이며, 소수의 자원을 연근해 수역에서 내유하기 전에 미리 어획하려 하는 실정이다. 수요국은 위에서 언급한 생산국 3개국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 국가 등이다.

일본의 어획량은 1990년대부터 2010년대 전반까지는 20만 톤에서 30만 톤이었으나, 2015년경부터 급감하였다. 2022년에는 1만 7,910톤, 2023년에는 2만 5,533톤으로 최저 수준을 이어나갔다.

2023년 일본의 꽁치 수입량은 전년 대비 24% 감소한 5,584톤이다. 대만산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소수지만 중국산도 있다. 대만산의 2023년 평균 단가는 kg당 453엔으로, 전년 대비 16% 상승하였다.

2024년 1~5월 수입은 대만과 중국을 합쳐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한 1,092톤을 기록하였다.

일본의 수출량은 2020년 2,850톤, 2021년 2,300톤, 2022년 663톤, 2023년 612톤으로 급감하였다. 태국, 베트남 등이 주요 수출 시장이며, 수출 단가는 kg당 380엔으로 10% 감소하였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7월 18일자

日, 꽁치 어선의 빨강오징어 어업 겸업 연구

향후 수년 내 남쿠릴 어장 형상 예측

일본 수산연구·교육기구 개발조사센터는 꽁치 봉수망 어선에서 빨강오징어 조업을 겸업하는 연중 조업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양쪽 모두 집어등을 사용한 어업이며, 어기가 겹치는 기간이 적기 때문이다. 현재의 장비를 활용하면서 경제성을 평가할 예정이며, 시험 어업 사업을 할 봉수망 어선의 용선도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꽁치 어업 종료 후 정박하여, 우선 오징어 어구 5세트 및 수중등을 탑재한 간이 장비로, 2025년도 3월에 산리쿠(三陸, 일본 동북 지방 해안 지역) 연근해의 오징어를 조업할 예정이다. 이후 다시 정박하여 오징어 어구를 20세트로 증설하는 등, 전업 오징어선과 같은 장비로 완성하여, 5~7월에 북태평양 공해 수역에서 조업할 예정이다. 이후 8월부터 꽁치 조업에 시기를 맞추는 형태로 조업을 종료한다.

이번 시험 어업 사업에서는 사용 가능한 장비와 개조에 드는 비용을 판별한다. 집어등은 현행 선박에 탑재된 기기를 사용하여, 사전에 배광(配光)이나 기기의 배치를 조사한다. 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명확히 파악하여, 몇 명의 선원으로 어느 정도 어획할 수 있는지 판별할 예정이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4년 7월 19일자

남대서양에서 이빨고기 조업선 침몰 사고 발생

승무원 27명의 운명 불투명

포클랜드 제도 인근 남대서양에서 F/V 아르고스 조지아호가 침몰한 가운데, 27명 선원의 운명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BBC에 따르면 이빨고기 조업 중이던 이 선박은 7월 22일(월) 포클랜드 동쪽 약 200마일 해상에서 파도가 거세지자 결국 오후 4시경(현지시간) 선원들이 배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포클랜드 제도와 사우스 조지아 및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 정부, 영국 해양경비안전청, 영국 남대서양군, 스페인 해양안전구조협회가 구조 작전에 착수하였다. 민간 어선 2척도 수색에 참여하고 있다.

스페인 해양안전구조협회에 따르면 월요일 저녁 민간 어선인 로빈선박이 선박의 구명뗏목 중 하나를 발견하였지만 "매우 어려운" 기상 조건으로 인해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영국군 남대서양군도의 아틀라스 항공기가 구명보트의 위치를 추적하고 보고하였지만, 강풍과 육지와의 거리 때문에 수색에 항공기 참여가 제한적이었다고 밝혔다.

아르고스 조지아호는 영국과 노르웨이 회사가 공동소유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8년에 터키 조선소에서 건조된 길이 53미터의 이 선박은 영국령인 세인트헬레나의 산타 엘레나에 국적을 두고 있다. 7월 21일(일)에 포클랜드 포트 스탠리에서 출항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

* 출처: Seafoodsource, 2024년 7월 23일

외항선 외국인 선원, 필리핀인이 가장 많아

원양어선의 외국인은 인도네시아인이 대부분

해양한국(선원고용센터 자료 사용-2023년 말 기준)에 따르면, 해운수산업계에 종사하는 한국인 선원은 예비원을 포함해 3만 587명으로 지난해(3만 1,867명) 대비 4% 감소한 가운데 내·외항상선 한국선원은 1만 6,152명으로 지난해(1만 5,501명) 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알렸다.

외국인 선원의 경우 총 3만 436명으로 2022년(2만 8,281명)에 비해 7% 증가하였다.

3만 436명의 외국인 선원 중 외항선에는 1만 5,234명이 승선하였으며 6,590명(43%)이 필리핀인, 4,101명(27%)이 미얀마인, 3,664명(24%)이 인도네시아인으로 가장 많았다. 해기사는 모두 4,043명으로 필리핀인 1,385명(34%), 인도네시아인 1,238명(31%), 미얀마인 1,020(25%) 순으로 가장 많았다.

원양어선에는 3,845명의 외국인이 승선했다. 인도네시아인이 2,957명(77%)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인이 574명(15%), 필리핀인이 225명(6%)이었으며, 외국인 해기사 승선은 없었다.

※ 출처: 해양한국, 2024년 8월 1일

WTO, 수산 보조금 2차 협상 통과 실패

인도 반대 결정적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미국, 중국과 다수 환경 단체는 7월 22일, 23일에 진행된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총회에서 유해 수산 보조금 감축을 위한 협정 초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였다.

남획되는 자원의 회복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해당 협정의 체결은 20여 년 동안 진행되었고, 2022년 6월 1차 패키지가 타결되었다. 가장 첨예한 논점 중 일부를 다루는 2차 협정은 이번 WTO 총회에서 승인을 위하여 논의되었으나 인도의 반대로 인하여 무산되었다.

이번 협상은 아직 비준되지 않은 2022년 협정을 강화하여 세계 어선단의 남획 및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는 보조금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승인되면 중국, 러시아, EU와 같은 주요 어업국은 WTO에 지급하는 보조금과 원양어업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인도는 협정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적은 개발도상국에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강화된 예외 조항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협상은 채택에서 단순히 WTO의 166개 회원국이 '논의'하는 수준으로 격하되었고, 이들 중 누구라도 WTO 규정에 근거하여 협정의 통과를 차단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중국은 수산 보조금의 주요 공여국 중 하나지만, 이번 협상에서의 주요 참여자 중 하나이다. 이들은 최근 일부 원양 선박이 2022년 협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SeafoodSource, 2024년 7월 24일자

에콰도르 해군, 갈라파고스제도 IUU 순찰 강화

미국, 페루와 합동 훈련

에콰도르 해군은 갈라파고스제도 인근의 IUU 어업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로이터(Reuters)의 보도에 따르면, 에콰도르는 지난 6월 말에서 7월 초에 함정 6척을 파견하여 미국, 페루와 함께 IUU 어업 의심 선박을 제압하는 상황을 가정한 합동 훈련을 실시하였다.

로이터에 따르면 에콰도르 해군 함정이 IUU 순찰 목적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 것은 2018년으로, 2017년 갈라파고스제도 인근에서 중국 선박을 IUU 어업 혐의로 나포한 것이 계기였다.

에콰도르 정부는 중국 선단이 해당 수역에서 탐지되는 것을 피하려고 선반 위치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작동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국제법 위반 주장을 부인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7월 25일자

2032년까지 수산물 소비량, 12% 증가

생산량이 소비 증가를 따라잡지 못해 부족 현상 발생 예상

세2022년 전 세계 양식 생산량은 전례 없는 수치인 1억 3,090톤에 달하여 전체 수산생물 생산량의 51%를 차지하였다. 국가별로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 한국, 노르웨이, 이집트, 칠레 등 10개국이 전체 양식 생산량의 89.8%를 차지한다.

기록적인 수산물 생산은 식량 불안을 해소하는 데 수산양식이 가진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 세계의 수생생물 명목소비량은 2021년 1억 6,250만 톤을 기록하였다. 1961년 이후 이 수치는 세계 인구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1인당 세계 평균 연간 수생생물 명목 소비량은 1961년 9.1kg에서 2022년 20.7kg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생생물 생산량의 89%는 인간이 직접 섭취하여 소비되며 글로벌 식량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중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나머지는 어분과 어유 생산 등 간접적 소비 또는 비식용 목적으로 활용된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수산물 소비 증가를 지원하는 것은 건강한 식습관 장려와 전 세계 영양 개선을 위해 중요하다. 수산물은 고품질의 단백질일 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 미네랄, 비타민 등 핵심 영양소를 제공한다.

전 세계의 잡는 어업은 1980년대 후반부터 안정세를 유지해 왔다. 2022년 잡는 어업의 생산량은 9,230만 톤을 기록하였다. 이중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어획되는 해양어족자원 비율은 2021년 기준 62.3%로 2019년 대비 2.3% 하락하였다. 이는 어족자원 회복 및 어획량 증대 촉진과 지속가능성 수치 감소를 역전시킬 수 있는 성공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소득 상승 및 유통과 식습관 개선 등의 요인으로 2032년까지 명목소비량이 12% 증가하여 1인당 수산물의 평균 소비량은 21.3kg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생산량 전망치가 인구 증가와 소비량 증가를 따라잡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수산물에 동물성 단백질, 미량영양소 등 필요한 영양분을 의존하고 있는 지역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2050년까지 현 수준의 20.7kg의 명목 소비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체 수생생물의 공급량은 22%, 즉 3,600만 톤이 증가하여야 한다.

* 출처: FAO, 2024년 7월 1일

해기 인력 유지를 위한 노력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은 해외 무역량 수송의 99.5%를 외항해운에 의존하고 있다. 세계 제3위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미 선박의 운항뿐만 아니라 육상의 관리 및 감독까지 외국인 해기사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선원의 감소 현상은 직업 매력 저하로 인하여 일본 외에 모든 선진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겪고 있는 현상이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선박이 아닌 선원 부족으로 인하여 운송 능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현재 일본에는 2,127명의 외국인 선원(해기사 1,767명, 부원 398명)이 승선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필리핀(72%)과 인도(12%) 선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일본 선원의 승선 기간은 4~6개월 승선 이후, 2~3개월의 휴가 제공으로 해상생활의 격리기간을 줄이고 있다.

일본 외항 선원의 평균임금은 일본 전체 산업의 육상근로자 대비 1.9배가 많으며, 내항 선원 대비 1.3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임금도 가정과 사회와의 격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임금 인상 요구는 커지고 있다. 이에 회사는 선원과 종신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육상직원과 동일한 급여체계를 도입하여 선원의 소속감을 증진하고 있다. 이외에 선박 근무 후 1, 2항사나 1, 2기사가 되면 일정 기간 육상 근무를 하는 순환 근무 제도를 시행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한국해기사협회는 현재와 같은 해기 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 1,500여 척의 국적 외항선 중 600여 척만 운항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제시하였다. 이는 초급 해기 인력의 78%가 5년 내 해상 승선직을 떠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2만 6,240명의 해기사가 부족(2021년 기준)하며, 우리나라도 상선의 경우 3,406명(2023년 기준)의 외국인 해기사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부족한 해기 인력은 1,227명으로 파악된다. 만약 외국인 해기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2040년이 되면 1만 893명의 해기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선박은 몇 년 내에 건조할 수 있으나 고급 해기사를 양성하는 데는 10년 이상이 소요된다. 국가 운송 능력 부족 등 미국이 겪고 있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기 인력 해상 근무 유지 및 확보를 위한 관심과 협력이 시급하다.

* 출처: 해비라기(해기사협회), 2024년 7월 22일

中 원양어선, 수익성 유지 위해 임금 삭감

노동 착취 상황 지속

영국에 본사를 둔 비영리 단체인 Planet Tracker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원양어업은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해 수익성 악화를 극복하고 있다고 한다.

기후 변화의 영향과 보조금을 제한하는 세계무역기구의 협약으로 인해 중국의 거대한 상업 어선 선주들이 보다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플래닛 트래커는 상하이 선원 급여 지수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기업이 재무 보고서에 공개한 데이터와 비교하였다.

상하이해운거래소가 발표한 자료 따르면 22~30명의 선원이 승선한 선박의 선원 월급은 2,300~2,700달러지만 선사가 보고한 수치는 훨씬 낮았다. 각 회사가 제출한 공개 문서에 따르면 저장오션패밀리는 월평균 903달러를 지급했지만, 중국어업회사(CNFC)는 1,075달러, 산동중루는 892달러를 선원에게 월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원양어업 회사들은 인도네시아 같은 저임금 국가를 저렴한 노동력의 공급처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선박에서의 노동 착취에 대한 보고와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플래닛 트래커는 환경정의재단을 비롯한 다른 비정부기구에서도 이 조사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정의재단에 따르면 중국 선박의 갑판원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 300달러를 벌고 있다.

플래닛 트래커에 따르면 중국 선박은 수익성을 위해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 출처: Seafoodsource, 2024년 7월 31일

즉석조리 및 섭취 제품에 대한 관심 증가 예상

유통기한이 길고 보관이 편리한 수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

세계 식량 안보 및 농업 비즈니스 연감의 저자에 따르면, 즉석조리 및 즉석 섭취 제품 수요 증가는 농업 비즈니스 시장의 트렌드 중 하나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8년까지 즉석조리 및 즉석 섭취 수산물의 세계 시장 규모는 1,13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도시화, 세계 인구 증가, 인터넷 기술 및 온라인 상거래의 발전이 즉석 조리 식품의 수요 증가에 기여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연감의 저자들은 "최근 수년간 천연 수산물과 생선으로 만든 즉석조리 제품이나 통조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전 세계 수산물 통조림 시장은 2025년까지 2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분야의 주요 성장 동력은 유통기한이 길고 보관이 '편리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이다.

저자는 외국의 가공 수산물 생산자들이 포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때때로 제품을 기념품으로 취급하기도 한다고 지적하였다.

※ 출처: Fishnews, 2024년 7월 29일자

러시아 생선 통조림과 보존 식품의 생산 늘려

수산물 보존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

2024년 생선 통조림 생산량은 지난 2년간의 감소와 침체 이후 회복적인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어업 연합 분석가들은 지적하였다. 보존 식품 생산에서도 긍정적인 현상이 관찰된다.

생선 및 수산물로 만든 통조림 식품 및 보존 식품 생산 추세는 어업 연합 분석 센터에서 강조되었다.

2024년 1~6월 생선통조림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한 25만 3,000톤에 달했다. 참고로 2022년과 2023년 생산량은 22만 1,000톤으로 같은 수준이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수산물 통조림 생산량이 8,000톤으로 두 배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어업 연합에 따르면 이러한 역학관계는 이 제품 카테고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음을 반영한다.

6개월간의 결과에 따르면 생선 보존 식품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5% 증가한 13만톤, 수산물 보존 식품 생산량은 25% 증가한 2만톤을 기록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수산물과 바로 먹을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연합은 말하였다.

* 출처: Fishnews, 2024년 8월 5일

러시아 항구 현대화 추진

미끼용 수입 제품은 식품용 검사를 거치지 않아 섭취 시 위험

러연방 수산청은 사할린에 어선 서비스를 위한 현대식 항만 터미널 건설을 코르사코프 항구에 추진할 예정이다.

이 항구의 인프라 재건 프로젝트는 정박지 관리를 맡은 연방 자원 공사가 시행하고 있다.

연방 수산청에 따르면 어항 공사 계약은 7월 22일에 체결되어 2026년 말까지 현대화된 시설이 가동될 예정이다.

항만 재건을 통하여 접안 시설의 길이가 최대 793m까지 늘어나고 화물의 처리 능력은 연간 15만 톤에서 79만 5천톤으로 5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당국은 항만 현대화를 통하여 북해 운송 통로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항구 부지에 수산물 가공, 저장 및 판매 시설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Fishnews, 2024년 8월 5일

러 조업감시센터, 오만에 소개

조업선 대부분 전자서비스 활용으로 관리 및 효율 강화

모스크바를 방문한 오만 술탄국 대표단에게 러연방 수산청의 디지털 서비스와 통제 및 허가 활동 관리, 그리고 어업 모니터링을 위한 솔루션이 소개되었다.

이 회의는 러시아 연방 의회와 러시아 연방 수산청의 안드레이 야코블렙 부청장이 참여하였다.

수산 분야의 경험 교환을 위해 마련된 원탁회의 참석자들은 수산업 규제와 어류 생산자에 대한 국가 지원 조치, 수생 생물자원 보호 및 복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제를 고려하였다.

회의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러시아의 수산업 디지털화 경험, 즉 어업과 규제 당국과의 상호작용을 크게 간소화하는 혁신적인 솔루션과 디지털 기술의 도입이었다.

러 조업감시센터 부센터장은 어업 활동과 선박 위치에 대한 데이터 통합 운영과 전자 허가 및 전자 조업 일지 시스템을 통한 전자 허가 선박 전송 및 선박 어업 자료 취합 등의 사례를 발표하였다.

현재까지 러시아에서 선박 어획량 데이터의 97.5%가 전자 조업서비스를 사용하여 기록되고 있으며 어업 허가가 온라인으로 선박으로 전송되어 어업 활동에 대한 통제와 수생 생물 자원 개발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다.

회의 기간 동안 선박 위치 모니터링과 어업 활동 보고서 수집을 위해 러시아 자국 위성 통신 시스템으로의 전환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 출처: 러연방 조업감시센터, 2024년 7월 23일

일본의 수산업, 고사위기에 빠져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자원 확보에 난항

일본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와 어민의 고령화 등으로 수산업이 위기에 빠졌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23년도 어획량은 2022년 대비 5% 감소한 372만 톤을 기록하여, 1984년의 1,282만 톤 대비 70.1%나 감소하였다. 특히 최근 5년간 꽁치, 오징어, 고등어 등 주력 어종의 어획량이 각각 80%, 60%, 50% 감소하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주요 어업방식은 정치망을 통한 어업이지만 이 어법은 산란어 및 어린 물고기 혼획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어업을 위해 지양해야 하는 어법이다. 이처럼 규제와 현실이 맞지 않다는 점과, 회유성 어종을 지키려면 국제적 협조가 필요하지만 주변 국가와의 논의 진전이 없는 점도 지적하였다.

수산업이 위기에 빠지면서 종사자도 빠르게 줄어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 어업자가 39%에 이르렀으며, 40대 미만의 젊은 층은 1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의 지방 정부는 젊은 층이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술 연수 및 주택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시도하고 있다.

※ 출처: 내일신문, 2024년 7월 19일

세네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생선, 세네갈 떠나

정어리, 기후 온난화로 북쪽으로 이동

세네갈의 어업자들은 이 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생선인 정어리가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어업위원회 부회장은 정부의 관리 소홀이 주요 이유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정어리는 기후 온난화와 함께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수년 동안 과학자들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정어리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발견해 왔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에 걸쳐 진행된 새로운 연구는 모로코에서 기니에 이르는 바다의 일부를 연구하여 북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의 바다에서 물고기의 분포를 조사하여 6월에 영국 학술지 Scientific Reports에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생태계의 열대화"라고 알려진 현상을 강조한다.

정어리는 모리타니와 세네갈 해안에서 모로코 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상당한 양의 정어리 어획량이 기록되고 있다. 이러한 이동의 배경에는 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가 있다.

* 출처: 세네갈 명예수산관(Rfi.fr), 2024년 7월 16일

사우디아라비아, 어업 지원 프로그램 시작

선박 구매 및 항만 현대화 지원

사우디아라비아 환경 수자원 농업부는 어업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년 동안 어업 부문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사우디는 이미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민들에게 선박 구매를 위한 우대 대출을 제공하며 홍해와 페르시아만의 항구 현대화 계획을 지원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산물 생산량은 2023년에 21만 4,600톤으로 기록적인 80% 증가를 달성하였다. 2024년에는 이 수치가 7.1% 더 증가하여 23만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산물 생산량은 여전히 국내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부족분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이에 러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수산물 주요 공급 국가로 등록하여 수출을 통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출처: Fishnet, 2024년 7월 16일

명태

김기택

모두가 입을 벌리고 있다
모두가 머리보다 크게 입을 벌리고 있다
벌어진 입으로 쉬지 않고 공기가 들어가지만
명태들은 공기를 마시지 않고 입만 벌리고 있다
모두가 악쓰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입만 벌리고 있다

그물에 걸려 한 모금이라도 더 마시려고 입을 벌렸을 때
공기는 오히려 밧줄처럼 명태의 목을 졸랐을 것이다
헐떡거리는 목구멍을 틀어막았을 것이다
숨구멍 막는 공기를 마시려고 입은 더욱 벌어지고
입이 벌어질수록 공기는 더 세게 목구멍을 막았을 것이다

명태들은 필사적으로 벌렸다가 끝내 다물지 못한 입을
다시는 다물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끝끝내 다물지 않기 위해
입들은 시멘트처럼 단단하고 단호하게 굳어져 있다
억지로 다물게 하려면 입을 부숴버리거나
아예 머리를 통째로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말린 명태들은 간신히 물고기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물고기보다는 막대기에 더 가까운 몸이 되어 있다
모두가 아직도 악쓰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입은 단지 그 막대기에 남아 있는 커다란 옹이일 뿐이다
옹이 주변에서 나이테는 유난히 심하게 뒤틀려 있다

7월 오징어 국내 동향

전월 대비 생산량 4% 감소, 수입량 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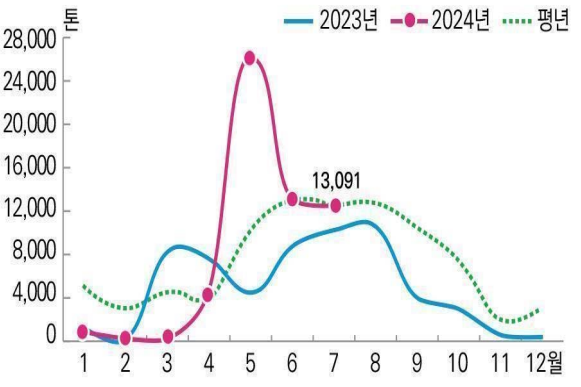
□ **생산동향**〈7월 오징어 생산량, 전년 대비 증가〉

7월 오징어 생산량은 1만 2,577톤으로 전월 대비 3.9% 감소하였으나, 전년 대비 23.1% 많았다.

연근해산 오징어 생산량은 1,429톤으로 전월 대비 10.7% 감소하였다.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67.3% 적었는데. 이는 서해안 지역의 오징어 조업이 전년 대비 늦게 개시되었기 때문이다.

원양산 오징어 반입량은 1만 1,148톤으로 전월 대비 3.0% 감소하였으나,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90.5%, 71.0% 많았다.



7월 원양산 오징어 어획량은 55톤으로 전월 대비 83.1% 감소하였다. 전량 원양트롤어업으로 어획되었으며, 남서대서양에서 원양채낚기어업의 어기는 종료되었다.

7월까지 원양산 오징어 누적 어획량은 5만 9,319톤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90.2%, 56.9%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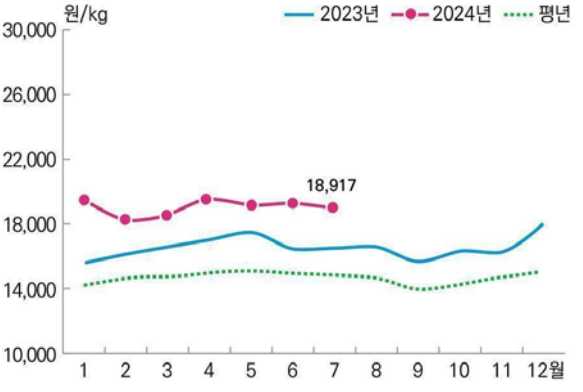
□ **가격동향**〈7월 냉동 오징어 소비자가격, 전월 대비 하락〉

오징어(신선냉장) 산지가격은 kg당 7,630원으로 월말 들어 품질이 양호한 오징어 위판 물량이 늘며 전월 대비 170.7% 상승하였으며, 전년보다도 16.6% 높았다.

오징어(냉동) 도매가격은 kg당 14,910원으로 전월과 비슷하였으나,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2.9%, 42.2% 높았다.

오징어(냉동) 소비자가격은 kg당 18,917원으로 산지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형소매점 할인율 상승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한편, 전년 및 평년보다는 각각 14.0%, 27.8% 높았다.



□ **수출입동향**〈7월 오징어 수입량, 전월 대비 증가〉

7월 오징어 수출량은 717톤으로 전월 및 전년 대비 각각 67.5%, 46.0% 감소하였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282톤)과 미국(275톤) 으로 수출이 많았고. 그 외 태국, 호주, 캐나다 등으로 수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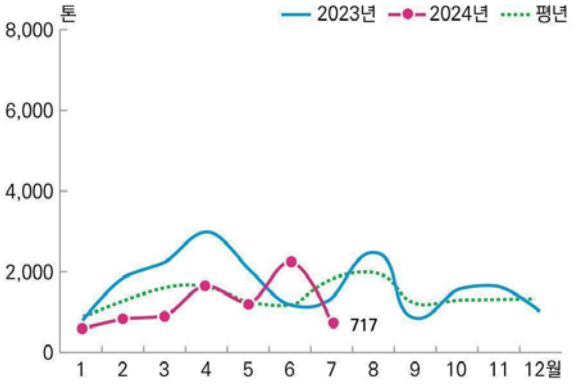
제품 형태별로는 기타(조제 및 저장처리) 오징어(293톤), 냉동오징어(203톤), 조미오징어(144톤) 등의 순이었다.

7월 오징어 수입량은 1만 9,807톤으로 전월 대비 3.4% 증가하였으나,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1.7%, 3.6%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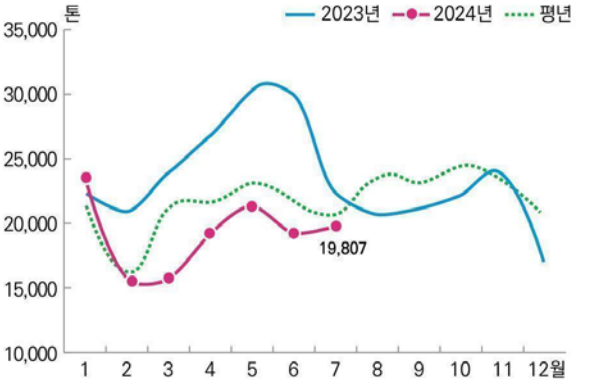
국가별로는 중국산이 1만 1,011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칠레(3,325톤), 페루(3,304톤) 등의 순이었다.

제품 형태별로는 냉동오징어(8,841톤), 기타(조제 및 저장처리) 오징어(8,187톤), 조미오징어(2,496톤), 건조오징어(275톤) 등의 순이었다.

〈오징어 수출량 추이〉



〈오징어 수입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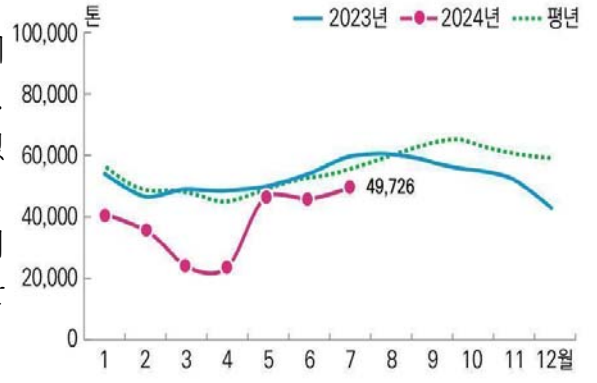


□ **재고동향**〈7월 오징어 재고량, 전월 대비 증가〉

7월 말 오징어 재고량은 4만 9,726톤으로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줄며 전월 대비 9.3% 증가하였다.

한편, 전년 및 평년보다는 각각 15.9%, 10.3% 적었다.

8월 연근해 어황은 평년 대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원양산 반입량도 줄 것으로 보여, 재고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KMI 수산관측 8월호

7월 명태 국내 동향

전월 대비 수입량 56% 증가, 소비자가격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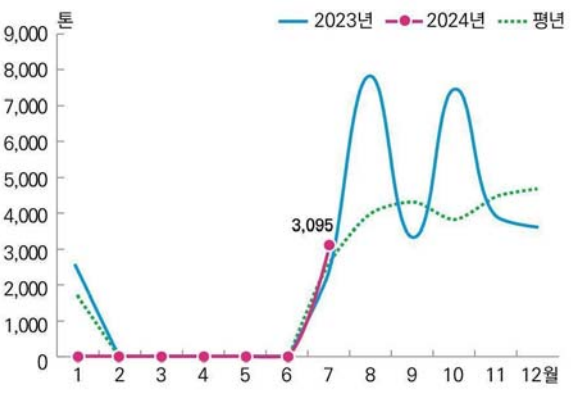
□ **생산동향**〈7월 원양명태 반입 시작, 전년 및 평년보다 증가〉

2024년 7월 11일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된 원양 명태의 국내 반입이 시작되었다.

7월 명태 생산량은 3,095톤으로 전년 및 평년에 비하여 각각 36.7%, 15.8% 많았다.

그러나 7월까지 누적생산량은 전년 및 평년에 비하여 각각 35.4%, 29.6% 적었다.

한편, 7월 31일까지 러시아수역 내에서 어획된 원양 명태는 1만 1,019톤으로 배정된 쿼터의 50.1%를 소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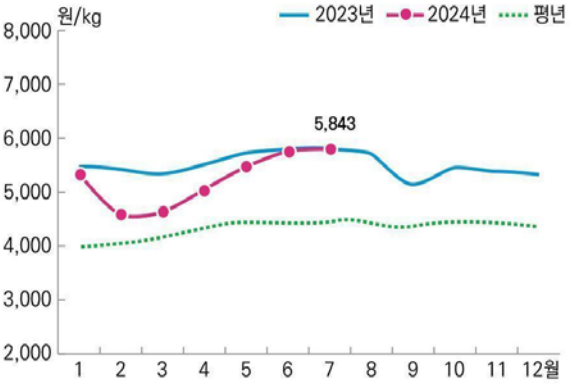


□ **가격동향**〈7월 명태(냉동) 소비자가격, 전월과 비슷한 kg당 5,843원〉

7월 명태(냉동) 도매가격은 kg당 2,386원으로 전월과 비슷하였다.

그러나 '러-우' 사태로 평년에 비해 높은 가격 수준을 보였던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5.4% 낮았다.

명태(냉동) 소비자가격은 kg당 5,843원으로 전월과 비슷하였으나, 평년에 비해서는 높은 가격 수준을 보였다.



□ **수출입동향**〈7월 명태 수입량, 전월 대비 증가한 3만 3,166〉

7월 명태 수출량은 5,701톤으로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3.3%, 139.6% 증가하였으나, 평년에 비해서는 35.5%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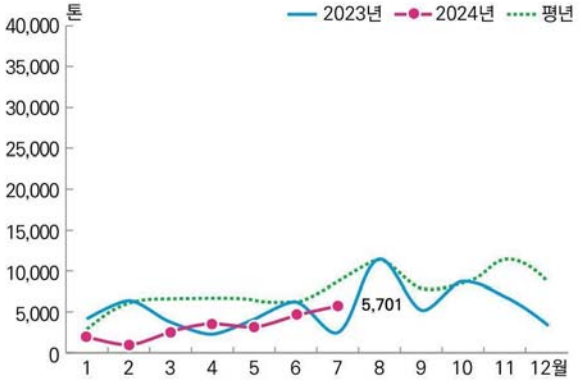
국가 및 제품형태별로 보면, 냉동제품은 중국 1,381톤, 베트남 145톤 등이 거래되었고, 냉동필렛 1,258톤, 냉동연육 185톤 등이 중국으로 수출되었다.

명태 수입량은 전월 대비 56.0% 증가한 3만 3,166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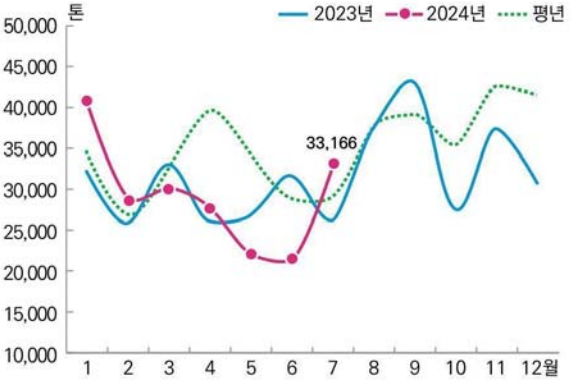
전년 및 평년에 비해서도 각각 29.9%, 18.6% 많은 양이었다.

러시아산 냉동제품이 8,016톤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 냉동연육 6,517톤, 러시아산 냉동연육 6,278톤, 러시아산 냉동필렛 2,353톤 등이 수입되었다.

〈명태 수출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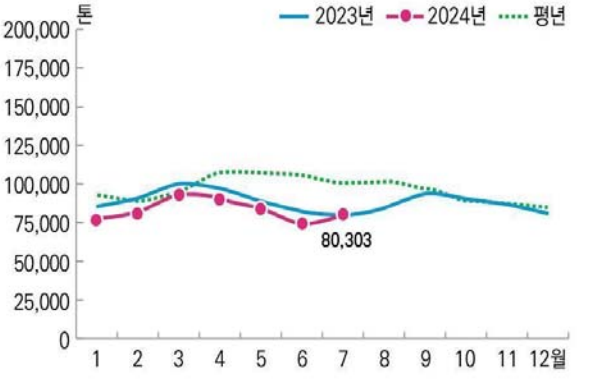
〈명태 수입량 추이〉



□ **재고동향**〈7월 재고량, 전월 대비 증가〉

7월 말 기준 명태 재고량은 생산 및 수입 증가로 전월 대비 6.3% 증가한 8만 303톤이었다.

전년 동월과는 비슷한 양이었지만, 평년에 비해서는 21.2% 적었다.



* 출처: KMI 수산관측 8월호

해수부,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 개최

100여 개국 정부, 비영리단체, 기업 등 1,000여 명 참석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와 2025년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될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협력 협약식을 2024년 7월 19일 부산 아스티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워 오션 콘퍼런스(OOC)'는 해양을 단독 주제로 다루는 국제 해양회의로 100여 개국의 정부, 비정부기구, 기업 등 전 세계 해양리더가 모이는 자리이다. 특히, 해양 오염, 불법 어업, 기후 변화 등 글로벌 해양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협력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다.

* '14년 미국에서 최초로 개최 이후, 국가별로 순회하여 매년 개최('24년 9차 그리스)

* 논의의제 : 6개 기본의제(해양오염, 해양보호구역, 기후변화, 지속가능어업, 해양경제, 해양안보) + 개최국 1개 특별의제(해양 디지털)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는 '아워 오션, 아워 액션(Our Ocean, Our Action)'이라는 슬로건 아래, 해양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번 회의는 각국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과 시민사회도 해양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약속과 행동을 발표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협력을 모색하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 부산시와의 협약은 대한민국 대표 해양도시인 부산시와 협력하여 부산의 다양한 해양·마이스·관광 등 부산의 다양한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국제회의 참가자들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해수부) ▲ 본회의 및 부대행사 기획 ▲ 세부 실행계획 수립, 이행 ▲ 행사장 조성 운영 총괄 ▲ 행사 준비협의체 운영을 통한 효율적 협력체계 구축

(부산시) ▲ 인력, 예산 등 필요한 행사 지원 제공 ▲ 홍보 지원 ▲ 교통, 숙박, 위생, 안전 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또한, 이번 협약 체결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해양경제를 위한 양 기관간 장기적인 협력 기반을 다지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 부산시와 협력하여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해양관리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해양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